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911-10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018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2019. 6. 5.

연구용역책임자 : 노민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문

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용역 의뢰한 「2018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6. 5.

연구용역책임자 노민택 이사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 참여연구진

---

## 연구책임

노민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사

## 평가위원

김준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평가단장)

노민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사

양진명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홍종해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상휘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송영출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정아 숭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학부 교수

김국형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강일준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보조

조강래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강한나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전임연구원

김현진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전임연구원

전현민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전임연구원

---



- I .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 ..... 1
  - 1.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 3
  - 2.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 4
  - 3. 경영실적 평가방법 ..... 7
  
- II .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11
  - 1. 종합 평가결과 ..... 13
  - 2. 평가범주별 결과 ..... 18
  - 3. 기관별 주요평가결과 ..... 34
  
- III .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47
  -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49
  -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78
  -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110
  - 4. 한식진흥원 ..... 142
  
- IV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 177
  - 1. 정책제언 ..... 179
  - <부록> 2018년도 공통지표 세부평가내용 편람 보완사항 ..... 182

---

## I .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개요

---



# I.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

## 1.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 (1) 연구 배경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기타공공기관도 경영 개선과 부채관리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14년부터 주무 부처 주관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해왔다.
-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부터 소속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한식진흥원(구 한식재단)이 추가된 이후 2019년 현재 5년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2) 평가 의의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포괄적 관리·감독권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 (3) 연구용역 수행 기간 및 일정

- 경영평가단은 2019년 3~6월에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의 2018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였다.
- 공공기관이 작성·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사전 서면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평가를 진행하였다(평가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lt; 경영실적평가 주요 일정 &gt;

■ 2019년 3월 06일	계약체결
■ 2019년 3월 11일	경영평가단 운영 일정협의
■ 2019년 3월 21일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평가위원 배부
■ 2019년 3월 28일	경영평가 착수보고회 및 평가단 대상 평가설명회
■ 2019년 3월 29일	피평가기관 대상 평가설명회
■ 2019년 4월 01일 ~ 4월 05일	서면평가
■ 2019년 4월 08일 ~ 4월 12일	현장평가 확인사항 도출
■ 2019년 4월 18일 ~ 4월 25일	현장평가
■ 2019년 4월 26일 ~ 5월 08일	평가결과의 종합 및 검토
■ 2019년 5월 09일 ~ 5월 20일	평가결과 초안 도출
■ 2019년 5월 21일 ~ 5월 23일	기관별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 2019년 5월 24일 ~ 5월 28일	평가위원별 이의신청 조정 여부 검토
■ 2019년 5월 29일	이의신청 사항 조정결과 회신 및 결과 확정
■ 2019년 5월 30일	최종보고회 진행
■ 2019년 6월 05일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2.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 (1) 경영평가단 구성

- 2017년 대비 2018년 평가단 구성과 평가방법 등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총 11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관리 부문(3인) 및 주요사업 부문(8인/기관별 2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평가위원은 (前)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교수, 박사 등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였으며, 평가단은 사전모임을 통하여 역할분담과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이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지표(계량·비계량)는 담당 평가위원 3인이 4개 기관을 공통으로 평가하고, 주요사업지표(계량·비계량)는 각 기관의 세부분야 관련 전문 평가위원 2인이 평가를 시행하였다.
- 2018년도 현장평가는 총 3시간으로 확대하여 더욱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 현장평가에서는 실적보고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을 지표별 담당자 대면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 평가의견서는 각 피평가기관에 회람시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 평가위원 경력 및 역할 분담 >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1	평가단장	김준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국방부 평가위원(2019) - 국방부 운영심의회 위원(2016~2019)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 연구센터장(2008~2009)	- (경영관리, 4개 기관 공통) 사회적 가치구현 계량·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2	연구책임(평가위원)	노민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사	- 인천시 자체평가위원(2019) - 국방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2015~2018) - 경기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2015~2017)	- (경영관리, 4개 기관 공통) 보수 및 복리후생 계량·비계량지표,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3	평가위원	양진명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2017, 2019) - 인천시 자체평가위원(2018) - 경기도 자체평가위원(2015)	- (경영관리, 4개 기관 공통) 국민소통 및 혁신, 재무예산관리 계량·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4	평가위원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심의위원(2013~2019)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자문위원(2012~2019) -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2012~2019)	- (주요사업,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방역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5	평가위원	홍종해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 농림수산물부, 식약처 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2012~2015) -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회장(2009~2011) -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2009~2011)	- (주요사업,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축산물위생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6	평가위원	이상휘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 한국재무관리학회 상임이사(2015~2018) - 한국기업경영학회 상임이사(2015~2018)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09~2010, 2013~2018)	- (주요사업,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7	평가위원	송영출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체국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2015~2017)</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 리스크 관리위원(2012~2014)</li> <li>-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09~20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농업정책자금 관리, 농업재해보험 관리 계량지표,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8	평가위원	서정아	송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 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5~2016)</li> <li>- 농림축산식품부 5급 과학 기술박사특채 사무관(2007~2013)</li> <li>- 서울대학교 농업생명소재연구소 전임연구교수(2006~20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선박 아시아메미나방 검사 계량지표,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9	평가위원	김국형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청 병해충 위험평가심의위원(2018~2019)</li> <li>- 환경부 LMO 위해성 심사위원(2014~2019)</li> <li>-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2013~20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AGM 예찰 방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10	평가위원	강일준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이사(2019)</li> <li>-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품질인증심사반 위원장(2015~2018)</li> <li>-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0~2011, 2013, 20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한식진흥원) 한식 콘텐츠 활용 실적, 한식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실적 계량지표,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11	평가위원	황운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센터 연구위원(2006~2019)</li> <li>- 한국식생활교육학회 상임이사(2018~20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한식진흥원)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 한식문화관 운영성과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 3. 경영실적 평가방법

-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및 최근 몇 년간 경영 개선 추세와 비교하여 2018년도 경영 개선 실적 또는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 평가범주는 경영관리(45점)와 주요사업(55점)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경영관리 범주는 사회적 가치구현, 국민소통 및 혁신,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의 4개 하위 평가요소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가치구현 하위요소는 일자리 창출(계량 및 비계량),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및 비계량), 안전 및 환경(비계량),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계량), 윤리경영(비계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민소통 및 혁신 하위요소는 혁신노력 및 성과(비계량), 국민평가(계량), 경영정보 공시(계량)에 대해 평가하였고, 보수 및 복리후생 하위요소는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총인건비 관리(계량), 노사관계(비계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등의 종합평가 및 기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평가하되, 주요사업 종합평가는 비계량평가를,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계량평가를 시행하였다.
- 2017년 대비 2018년 세부 평가지표 변경 사항으로는 단위 지표 ‘사회적 가치구현(19점 배점)’ 과 국민소통 및 혁신의 세부 평가지표인 혁신 노력 및 성과(3점 배점)가 신규 추가되었다. 주요사업지표 대비 경영관리 지표의 비중이 40%에서 45%로 증가하였으며, 계량지표 대비 비계량지표의 비중도 40%에서 45%로 다소 증가하였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는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3),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3),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3)), 국민소통 및 혁신(국민평가(4), 경영정보 공시(2)), 재무예산관리(재무예산 운영성과(5)), 보수 및 복리후생(총인건비 관리(5))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관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목표부여평가, 목표부여(편차)평가, 목표 대 실적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는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3)\*,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 안전 및 환경(2), 윤리경영(3)), 국민소통 및 혁신(혁신 노력 및 성과(3)), 보수 및 복리후생(보수 및 복리후생(4), 노사관계(3))로 구성되었으며, 계량지표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 통보 및 경영평가 반영’ 내용에 대한 점수 반영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비계량지표 총 3점 중 1점 배정),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지표 총 3점 중 1점 배정)에 반영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경우 4개 기관의 개별 사업단위별로 추진 계획·활동·성과·환류 과정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는데, 계량지표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및 가중치>

범주	지 표 명	가 중 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b>1. 사회적 가치구현</b>	<b>10</b>	<b>9</b>	<b>19</b>
	(1) 일자리 창출	3	3	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3	5
	(3) 안전 및 환경	2	-	2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3	3
	(5) 윤리경영	3	-	3
	<b>2. 국민소통 및 혁신</b>	<b>3</b>	<b>6</b>	<b>9</b>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	3
	(2) 국민평가	-	4	4
	(3) 경영정보 공시	-	2	2
	<b>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b>	<b>5</b>	<b>-</b>	<b>5</b>
	(1) 재무예산 운영·성과	-	5	5
	<b>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b>	<b>7</b>	<b>5</b>	<b>12</b>
	(1) 보수 및 복리후생	4	-	4
	(2) 총인건비 관리	-	5	5
(3) 노사관계	3	-	3	
	<b>소계</b>	<b>20</b>	<b>25</b>	<b>45</b>
주요 사업 (55)	주요사업별 계량지표	-	17	17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8	-	18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	7
	<b>소계</b>	<b>25</b>	<b>30</b>	<b>55</b>
	<b>합 계</b>	<b>45</b>	<b>55</b>	<b>100</b>

- 기관의 종합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C), 아주 미흡(E) 등 6등급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지표별 평가점수 :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 종합평가 결과 산출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

<평가결과 종합점수 기준 및 수준 정의>

등급	종합점수	수준 정의
탁월 (S)	100~90점 이상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A)	90점 미만~8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B)	80점 미만~7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C)	70점 미만~6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 (D)	60점 미만~50점 이상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50점 미만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 평가지표 세부 내용은 4개 평가대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기관별 주요사업 세부지표 내용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8.10)」에 의거한다.



---

## Ⅱ.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 II.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1. 종합 평가결과

-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된 “농림축산식품부 (2018.10) 「2018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준거하여 경영관리 범주(45점)와 주요사업 범주(55점)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각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누어 각각 가중치 55:45로 평가하였다. 계량지표는 산식에 실적치를 적용하고 가중치에 따라 평가점수를 계산하였으며,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 점수를 부여하여 ‘A+’에서 ‘E0’까지 총 9단계로 평가하였다.
- 2018년도 기타공공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기관 간의 경영성과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평가하였다.
- 기관별 총점 결과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88.22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87.99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6.16점) > 한식진흥원(81.95점)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범주의 득점 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39.21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37.18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35.94점) > 한식진흥원(34.05점)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의 득점 결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52.28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50.81점) > 한식진흥원(47.90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46.95점)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평가 등급은 4개 기관 모두 A등급으로 나타났으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한식진흥원 간의 차이는 6.27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lt;2018년도 기타공공기관 지표별 평가 총괄&gt;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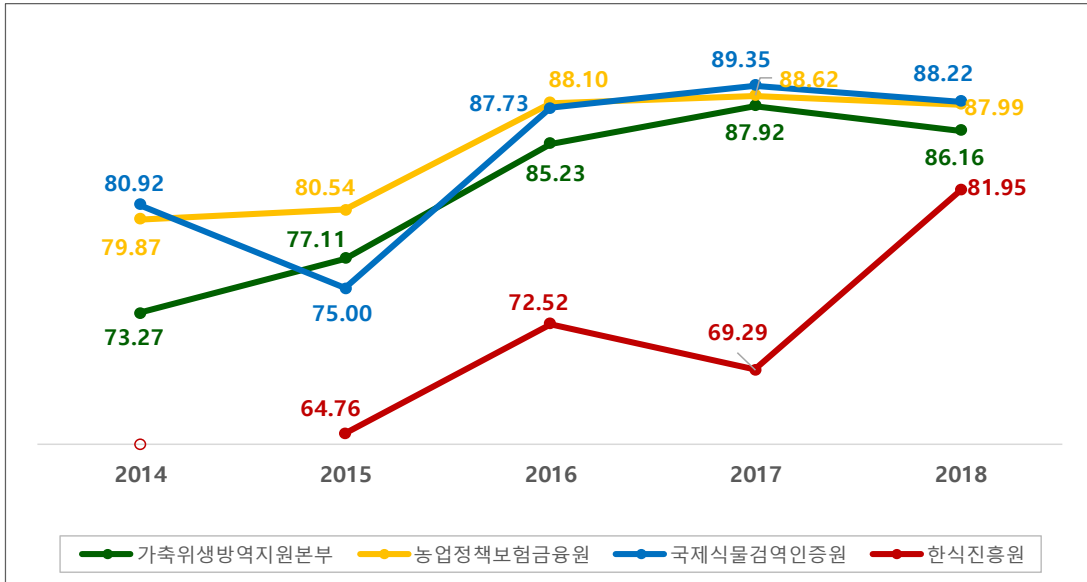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경영관리	사회적 가치구현	19	17.03 (89.63)	16.14 (84.95)	15.61 (82.16)	14.80 (77.89)
	국민소통 및 혁신	9	7.44 (82.67)	6.41 (71.22)	6.39 (71.00)	6.49 (72.11)
	재무예산 관리	5	4.94 (98.80)	4.73 (94.60)	4.14 (82.80)	4.66 (93.20)
	보수 및 복리후생	12	9.80 (81.67)	9.90 (82.50)	9.80 (81.67)	8.10 (67.50)
<b>경영관리 득점</b>	<b>45</b>	<b>39.21</b>	<b>37.18</b>	<b>35.94</b>	<b>34.05</b>	
주요사업	주요사업별 계량지표	30	26.55 (88.50)	29.71 (99.03)	29.78 (99.27)	30.00 (100.00)
	성과관리의 적정성	18	16.20 (90.00)	16.20 (90.00)	16.20 (90.00)	14.40 (80.00)
	지표구성의 적정성	7	4.20 (60.00)	4.90 (70.00)	6.30 (90.00)	3.50 (50.00)
<b>주요사업 득점</b>	<b>55</b>	<b>46.95</b>	<b>50.81</b>	<b>52.28</b>	<b>47.90</b>	
<b>총점</b>	<b>100</b>	<b>86.16</b>	<b>87.99</b>	<b>88.22</b>	<b>81.95</b>	
등급		A	A	A	A	
순위		3	2	1	4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경영평가가 시작된 2014년(1차 평가연도)부터 2018년(5차 평가연도)까지의 결과 추세를 살펴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매년 비슷한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3년 차 시점부터 성과가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식진흥원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진흥원의 경우 2015년도부터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그래프 상 4개년도 점수만 표시하였다.

<기관별 총점 변화 추세(5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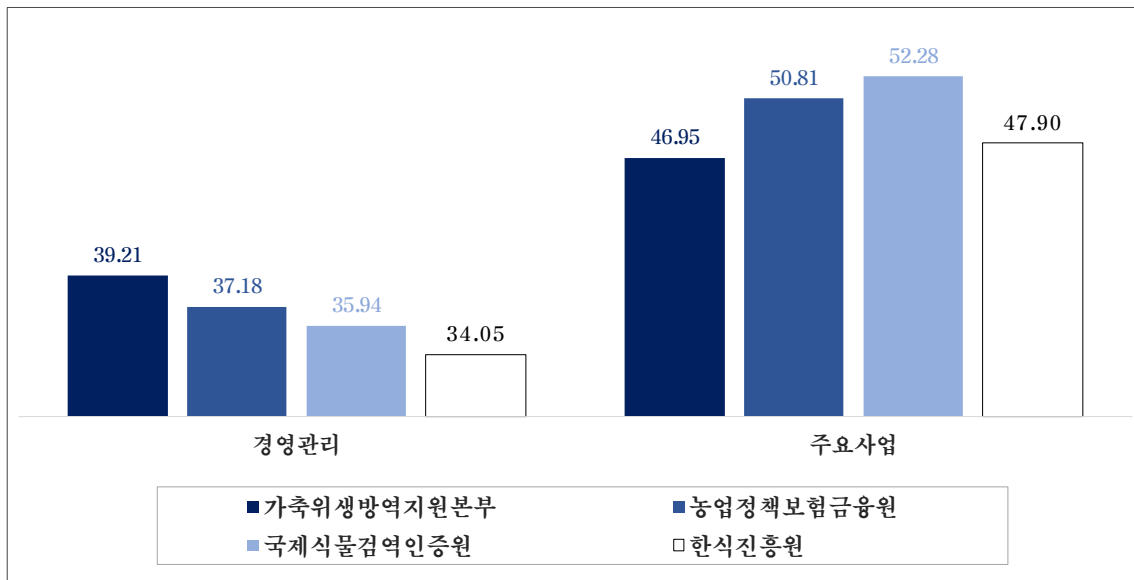
(단위 : 점)



○ 경영관리(45점 만점) 범주와 주요사업(55점 만점) 범주의 평가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경영관리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나타났으나, 주요사업에서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한식진흥원은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범주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가범주별 종합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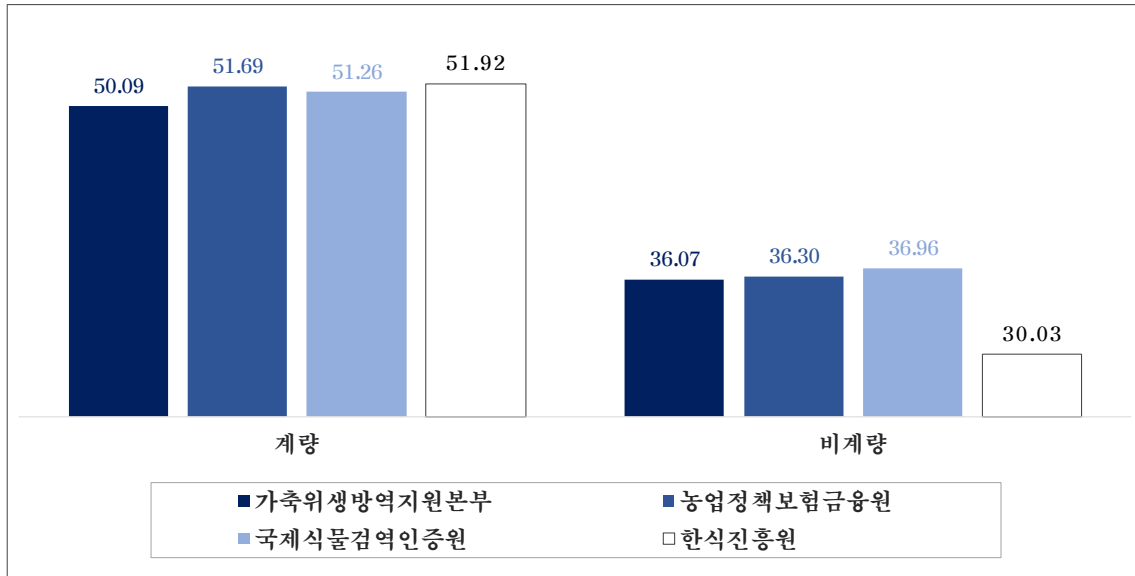
(단위 : 점)



- 계량지표(55점 만점) 평가와 비계량지표(45점 만점) 평가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계량지표에서는 한식진흥원이 51.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1.69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51.26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0.09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계량지표에서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6.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6.3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36.07점, 한식진흥원이 30.03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계량 및 비계량지표 평가결과>

(단위 : 점)



## 2. 평가범주별 결과

-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 경영관리 신규지표인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과 혁신 노력 및 성과지표는 올해 경영평가에 처음 도입되는 지표임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의 일자리 창출(비계량),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은 기관이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중점을 두는 사항에 대한 자체판단 결과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설정해야 하나, 4개 기관이 공통으로 자율선택지표 선정의 근거 제시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목표치 및 산출방법에 따라 기관별 유불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계량지표가 기관의 주요사업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수입 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계량지표의 경우, 식중독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환경 변화로 현물검사 건수(분모)가 늘어나 이상 보고 건수(분자)가 늘어났음에도 48.63%를 달성하여 비교적 낮은 달성률을 보였다. 검사 건수가 줄어들수록 높은 득점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잘못 설정된 지표로 인해 지표구성의 적정성에서도 또한 낮은 점수를 받아 타 기관 대비 주요사업 득점이 낮게 측정되었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모든 항목에서 목표치의 약 121%~147% 수준의 매우 높은 달성도를 보이며 만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을 획득하였다.

## 1 경영관리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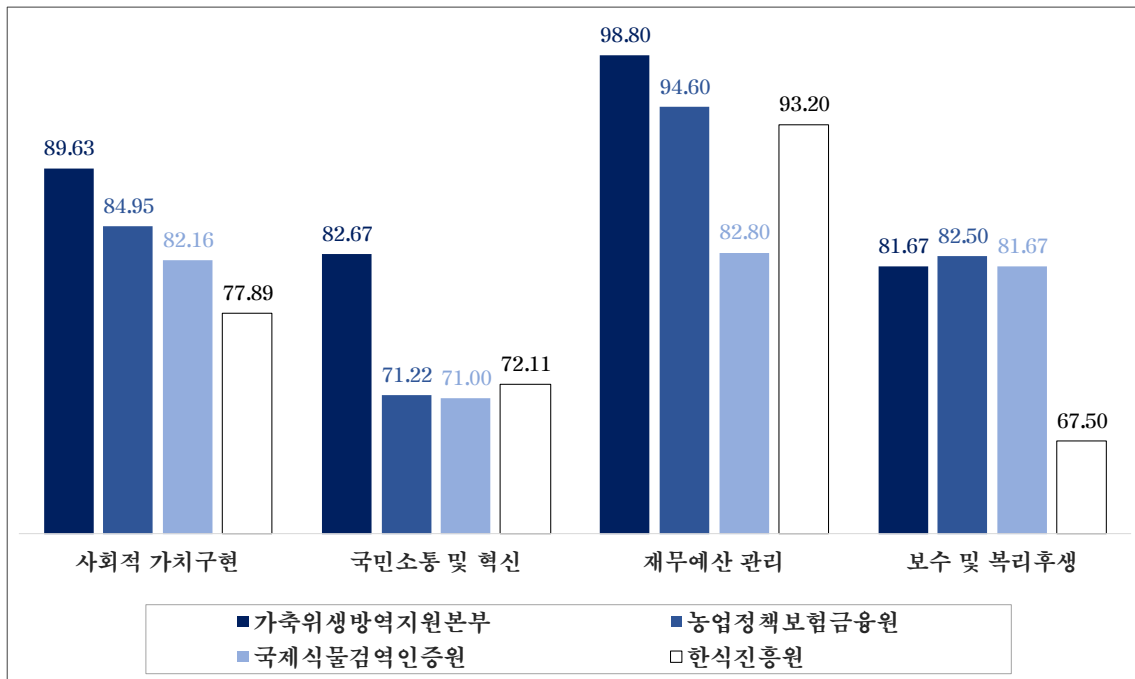
### (1) 종합 득점 결과

○ 경영관리 범주 평가지표 총 득점(45점 만점)을 살펴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9.21점(87.13%)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7.18점(82.62%)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35.94점(79.87%) > 한식진흥원 34.05점(75.67%) 순으로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계량지표 23.54점, 비계량지표 15.67점, 합계 39.21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 21.98점, 비계량지표 15.20점, 합계 37.18점을 획득하였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지표 21.48점, 비계량지표 14.46점, 합계 35.94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식진흥원은 계량지표에서 21.92점, 비계량지표에서 12.13점으로 합계 34.05점을 획득하였다.

<2018년 경영관리 범주 기관별 득점 분포>

(단위 : %)



- 경영관리 범주 평가지표 중 사회적 가치구현의 총점(19점 만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가 17.03점(89.63%)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16.14점(84.95%),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15.61점(82.16%), 한식진흥원이 14.80점(77.89%)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및 혁신의 총점(9점 만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7.44점(82.67%)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이 6.49점(72.11%),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6.41점(71.22%),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6.39점(71.0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재무예산관리의 총점(5점 만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4.94점(98.80%)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4.73점(94.60%), 한식진흥원이 4.66점(93.20%),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4.14점(82.8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수 및 복리후생의 총점(12점 만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9.9점(82.50%)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9.8점(81.67%), 한식진흥원이 8.1점(67.50%)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경영관리 계량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4.16%) > 농업정책보험금융원(87.92%) > 한식진흥원(87.68%) > 국제식물검역인증원(85.92%)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관별 경영관리 계량평가 종합점수>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3	3.00 (100.00)	3.00 (100.00)	2.53 (84.33)	3.00 (100.0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36 (78.67)	2.70 (90.00)	3.00 (100.00)	2.25 (75.00)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3	3.00 (100.00)	2.14 (71.33)	2.32 (77.33)	2.32 (77.33)
국민소통 및 혁신	국민평가	4	3.57 (89.25)	3.08 (77.00)	3.49 (87.25)	3.36 (84.00)
	경영정보 공시	2	1.67 (83.50)	1.33 (66.50)	1.00 (50.00)	1.33 (66.50)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재무예산 운영·성과	5	4.94 (98.80)	4.73 (94.60)	4.14 (82.80)	4.66 (93.20)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총인건비 관리	5	5.00 (100.00)	5.00 (100.00)	5.00 (100.00)	5.00 (100.00)
<b>총점</b>		<b>25</b>	<b>23.54 (94.16)</b>	<b>21.98 (87.92)</b>	<b>21.48 (85.92)</b>	<b>21.92 (87.68)</b>
순위			1	2	4	3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경영관리 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2017년 대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2.42점→23.54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18.41점→21.98점), 한식진흥원(20.19점→21.92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한 기관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22.47→21.48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기관별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8.35%) > 농업정책보험금융원(76.00%) > 국제식물검역인증원(72.30%) > 한식진흥원(60.6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관별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점수 종합>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3	2.80 (93.33)	2.67 (89.00)	2.53 (84.33)	2.53 (84.33)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87 (93.50)	1.83 (91.50)	1.73 (86.50)	1.70 (85.00)
	안전 및 환경	2	1.60 (80.00)	1.40 (70.00)	1.40 (70.00)	1.20 (60.00)
	윤리경영	3	2.40 (80.00)	2.40 (80.00)	2.10 (70.00)	1.80 (60.00)
국민소통 및 혁신	혁신 노력 및 성과	3	2.20 (73.33)	2.00 (66.67)	1.90 (63.33)	1.80 (60.00)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4	2.40 (60.00)	2.80 (70.00)	2.40 (60.00)	1.60 (40.00)
	노사관계	3	2.40 (80.00)	2.10 (70.00)	2.40 (80.00)	1.50 (50.00)
<b>총점</b>		<b>20</b>	<b>15.67 (78.35)</b>	<b>15.20 (76.00)</b>	<b>14.46 (72.30)</b>	<b>12.13 (60.65)</b>
순위			1	2	3	4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 가중치는 2017년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이므로, 평가지표에 대해 가중치 변경을 고려하여 득점비율에 의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2017년 대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0.00%→78.35%), 국제식물검역인증원(70.00%→72.30%), 한식진흥원(34.00%→60.65%)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한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80.00%→76.00%)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지표별 평가결과

- 2018년도부터 평가편람에 새롭게 추가된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지표에서는 모든 기관이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사회형평적 활동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함께 새롭게 추가된 국민소통 및 혁신 지표의 비계량지표인 혁신 노력 및 성과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세부항목 전체에서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한식진흥원은 상대적으로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지배력,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4개 기관 모두 사업비 집행률은 양호하나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에서는 계량지표인 총인건비 관리의 경우, 4개 기관 모두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기준 2.60% 이하를 준수하여 만점(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비계량지표인 보수 및 복리후생, 노사관리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모두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한식진흥원의 경우 2가지 세부지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사회적 가치구현(19점 만점)

- 4개 기관 모두 '18년 신규 추가된 '사회적 가치구현' 편람상 요구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 일자리 창출(6점)
  - 일자리 창출 비계량지표는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 통보 및 경영평가 반영' 내용에 따라, 청년고용 여력창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퇴

직자 대체 신규채용 외의 노력 항목의 비중을 33.3%(1.00점 만점)로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A0(2.8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B+(2.67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한식진흥원이 각각 B+(2.53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일자리 창출 계량지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이 각각 3.00점 만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2.53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2018년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환산제를 적용하여 일자리 창출 비계량지표의 점수를 계량지표에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체계성을 정립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 모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법령·지침을 준수하였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전환 대상심의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5점)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비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A0(1.87),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A0(1.83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1.73점), 한식진흥원이 B+(1.7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본 지표는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 통보 및 경영평가 반영’ 내용에 따라, 청년채용 노력과 실적을 반영하는 세부항목의 비중을 50%(1.00점 만점)로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계량지표의 경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00점 만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2.7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2.36점, 한식진흥원이 2.25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었지만, 기관의 여건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세부 활동별 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의 제고가 요구되었다. 또한, 단위활동 중심의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각 활동의 추진 목표, 기대효과 등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안전 및 환경(2점)

- 안전 및 환경 비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B+(1.60점)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0(1.40점), 한식진흥원이 C(1.2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정보보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안전관리 체계개선 및 예방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었으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수준의 취약점에 대한 분야별 진단, 분석 및 발전 방향이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3점)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한식진흥원이 2.32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2.14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모든 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고, 여러 항목에서 기준치의 100%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모든 평가항목(중소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여성 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춘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을 100% 이상 충족하였다.

## ○ 윤리경영(3점)

- 윤리경영 비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B+(2.4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0(2.10점), 한식진흥원이 C(1.8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윤리경

영체제 구축 개념 및 추진 방향 설정의 체계성 부분에서는 기관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 모두 다양한 자체 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각 활동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성과제시체계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국민소통 및 혁신(9점 만점)

○ 4개 기관 모두 ' 18년 신규 추가된 혁신 노력 및 성과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 ○ 혁신 노력 및 성과(3점)

- 혁신 노력 및 성과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편람에 따라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지배력,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1.00점,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1.00점, 중점추진과제의 성과 1.00점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기관별 평가 득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B+(0.80점), C(0.60점), B+(0.80점)로 총점 2.2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B0(0.70점), C(0.60점), B0(0.70점)로 총점 2.0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C(0.60점), C(0.60점), B0(0.70점)로 총점 1.90점, 한식진흥원이 D+(0.50점), C(0.60점), B0(0.70점)로 총점 1.8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모두 나름대로 혁신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부터 혁신과제를 선제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였으며, 이외 3개 기관 또한 추후 혁신추진계획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각 혁신실행 과제들에 대해서 구성원 공유와 점검 또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니터링 및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획의 체계성 확립과 미래상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민평가(4점)

- 국민평가 계량지표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취득한 점수를 가중치 4점에 적용한 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반올림하

여 산출하였다. 기관별 고객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및 평가 득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89.3점(A등급)으로 3.57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87.2점(A등급)으로 3.49점, 한식진흥원은 84.1점(A등급)으로 3.36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77.1점(C등급)으로 3.08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불만 원인을 나뉠대로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기관 차원의 만족도 자체조사에 대해서는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영정보 공시(2점)

- 경영정보 공시 계량지표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에 기재된 기관별 공시 종합 별점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의 배점 기준에 따라 가중치 2점에 적용하였다. 기관별 경영정보 공시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별점 9.5점으로 1.67점, 한식진흥원은 별점 11점으로 1.33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별점 11.5점으로 1.33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별점 30점으로 기관주의를 받아 1.00점의 순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지적사항의 사후 관리는 과거 발생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기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의 원인을 나뉠대로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착오, 변경된 매뉴얼에 대한 미숙지,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재무예산관리(5점 만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의 사업비 집행률은 모두 90% 이상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78.50%)은 정부 보조금이 없으므로 이월금을 만들어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지표의 경우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사업비 집행률 = 사

업비 집행액/사업비 예산현액)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비 집행률은 98.50%로 가장 높아 4.94점을 취득하였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93.15%로 4.73점, 한식진흥원은 91.46%로 4.66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78.50%로 4.14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양호하나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의 경우 비교적 연간 계획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연말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④ 보수 및 복리후생(12점 만점)

- 전체적으로 보수체계가 특정 대상 중심의 개선 방향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의 최종 목표인 Feedback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보수 및 복리후생(4점)

- 보수 및 복리후생 비계량지표의 경우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B0(2.80점)로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C(2.40점), 한식진흥원은 D0(1.6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도 적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 대상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총인건비 관리(5점)

- 총인건비 관리 계량지표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을 준수 여부(2.60% 이하)를 평가하는 지표로, 4개 기관 모두 5.00점 만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2.55%, 한

식진홍원은 2.3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17%,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0.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모든 기관이 기재부 가이드라인 기준 2.6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및 2017년에도 기재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노사관계(3점)

- 노사관계 계량지표의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B+(2.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B0(2.10점), 한식진홍원은 D+(1.5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법령 기준에 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적사항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소통 채널 운영은 대상자에 적합한 니즈 발굴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소통채널별 Feedback 강화를 통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주요사업 범주

### (1) 종합 득점 결과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총 득점(55점 만점)을 살펴보면, 국제식물검역인증원(52.28점, 95.05%) > 농업정책보험금융원(50.81점, 92.38%) > 한식진흥원(47.90점, 87.09%)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46.95점, 85.36%)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중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계량지표 29.78점, 비계량지표 22.50점, 합계 52.2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 29.71점, 비계량지표 21.10점, 합계 50.81점을 획득하였고, 한식진흥원은 계량지표 30.00점, 비계량지표 17.90점, 합계 47.90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계량지표에서 26.55점, 비계량지표에서 20.40점으로 합계 46.95점을 획득하였다.

<2018년 주요사업 범주 기관별 득점 분포>

(단위 : %)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중 주요사업 부문(계량지표) 총점은 한식진흥원이 30점(100%)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29.78점(99.2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 29.71점(99.0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88.50점(88.5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성과관리의 적정성의 총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모두 16.20점(A0, 90.00%)을 획득하였고, 한식진흥원은 14.40점(B+, 80.00%)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표구성의 적정성의 총점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6.30점(A0, 90.00%)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4.90점(B0, 70.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4.2점(C, 60.00%), 한식진흥원이 3.50점(D+, 50.00%)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한식진흥원(100.00%) > 국제식물검역인증원(99.27%) > 농업정책보험금융원(99.03%)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8.50%) 순으로 나타났다.

- 한식진흥원은 전체 계량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여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한 1개 지표(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98.7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94.20%)를 제외한 전체 계량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2018년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평가 점수 종합>

(단위 : 점,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	8.00 (100.00)	정책자금 투명성 개선 노력	10.00 (100.00)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7.78 (98.78)	한식 콘텐츠 활용도	10.00 (100.00)
시료채취(AI) 달성률	4.00 (10.00)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수준 개선노력도	7.00 (100.00)	안전사고 예방률	2.00 (100.00)	한식교육 공급 인프라 증가 실적	10.00 (100.00)
농장 예찰(예찰 실시 결과보고) 달성률	5.00 (10.00)	보험사업점검 기관 수 증가율	3.00 (100.00)	AGM 예찰 활동률	5.00 (100.00)	홍보 효과도 (국내외 홍보 효과)	5.00 (100.00)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7.12 (89.00)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4.71 (94.20)	수입재식용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	5.00 (100.00)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5.00 (100.00)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2.43 (48.60)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5.00 (100.00)	-	-	-	-
<b>총점 (25)</b>	<b>26.55 (88.50)</b>	<b>29.71 (99.03)</b>	<b>29.78 (99.27)</b>	<b>30.00 (100.00)</b>			
순위	4	3	2	1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주요사업 계량지표 2017년 35점에서 30점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이므로, 평가지표에 대해 가중치 변경을 고려하여 득점비율에 의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2017년 대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97.17%→99.03%), 국제식물검역인증원(98.51%→99.27%)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5.71%→88.50%)로 나타나고 있다. 한식진흥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 만점을 획득하였다.
- 기관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90.0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84.40%)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1.60%) > 한식진흥원(71.60%)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관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점수 종합>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18	16.20 (90.00)	16.20 (90.00)	16.20 (90.00)	14.40 (80.00)
지표구성의 적정성	7	4.20 (60.00)	4.90 (70.00)	6.30 (90.00)	3.50 (50.00)
<b>총점</b>	<b>25</b>	20.40 81.60%	21.10 84.40%	22.50 90.00%	17.90 71.60%
순위		3	2	1	4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주요사업의 비계량지표인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18점)과 지표구성의 적정성(7점)은 2017년 평가에서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25점 만점)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었다. 경영관리 비계량지표 가중치는 가중치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4개 기관 모두 2017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다. 상승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7.50점→20.4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00점→21.1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17.50점→22.50점)으로 나타났으며, 한식진흥원(5.00점→17.90점)은 타 기관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지표별 평가결과

- 4개 기관이 공통으로 계량지표에서는 일부 항목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나, 비계량지표 중 지표구성의 적정성의 경우 기관별 득점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제외한 3개 기관 모두에서 지표구성의 적정성이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와 비교하여 득점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식진흥원의 경우 평균 이하의 득점을 취득한바, 기관의 비전과 전략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의 선정, 목표치의 도전성 확보 등이 더욱 심도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① 주요사업 계량평가(30점 만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8점 만점), 시료 채취(AD) 달성률(4점 만점)에서는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에서 7.12점(89.00%)을 획득하였고,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에서 2.43점(48.60%)으로 타 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을 획득하였다.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이상보고 건수/현물검사 건수) X 100)의 경우, 전년도 대비 2018년도에 식중독균(살모넬라),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위해축산물 강화검사로 현물검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상 보고율이 8.029%로 전년 대비 0.575%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정책자금 투명성 개선 노력(10점 만점),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수준 개선 노력도(7점 만점), 보험사업점검 기관 수 증가율(3점 만점),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5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고,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은 4.71점(94.20%)의 득점을 획득하였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안전사고 예방률(2점 만점), AGM 예찰 활동률(5점 만점), 수입재식용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5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고,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은 17.78점(98.78%)의 득점을 획득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한식 콘텐츠 활용도(10점 만점), 한식 교육 공급 인프라 증가 실적(10점 만점), 홍보 효과도(국내외 홍보 효과)(5점 만점), 한식 문화관 운영 활성화(5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 전체 기관이 다양한 환경적 제약이 발생함에도 실적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여 높은 달성률이 나타났으나, 대부분 기관에서 목표치 및 점수 산출방법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성과관리의 적정성(18점 만점)

-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한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A0(16.20점), 한식진흥원은 B+(14.40점)의 득점을 획득하였다. 4개 기관 모두 주요사업의 성과관리가 대체로 평균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각 기관의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실적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였으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미흡점이 나타나 그에 따른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가 가중됨에도 지자체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일부 사업에서 추가 연구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도전적이고 합리적인 계량 목표치를 설정하여 대부분 사업에서 작년 대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본부별로 전년도 성과분석 및 문제점 영향 요인 분석 여부에 편차가 나타났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늘어나는 업무량에도 안전사고 100%와 예찰 및 방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항만 소재 유관기관들과 협업체계 확대, 전문인력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식진흥원은 주어진 여건에서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계획에 따라 수립·선정된 목표, 지표, 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지표구성의 적정성(7점 만점)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한 평가결과, 국제식물검역 인증원이 A0(6.30점)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B0(4.9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C(4.20점), 한식진흥원이 D+(3.5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도전성 있는 목표치 설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계량지표가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격을 대표하거나 도전적인 지표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존재했다.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격에 맞는 계량지표 개발 및 목표설정 방식에 대해 다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방법 설정 또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축산물 위생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에 맞는 계량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이 시급하였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점수 산출 방법(성격이 다른 지표의 가중평균, 목표부여(편차)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물검역 인증원은 일부 지표에 대해 가중치 및 목표치 조정과 대체지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식진흥원은 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 수준의 도전성이 미흡하여 지표 개선 및 목표설정 방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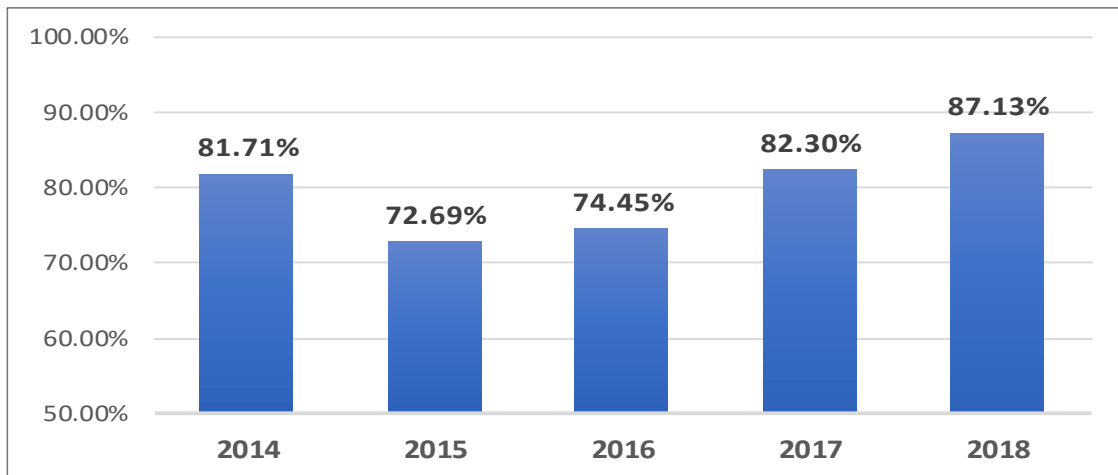
### 3. 기관별 주요평가결과

#### 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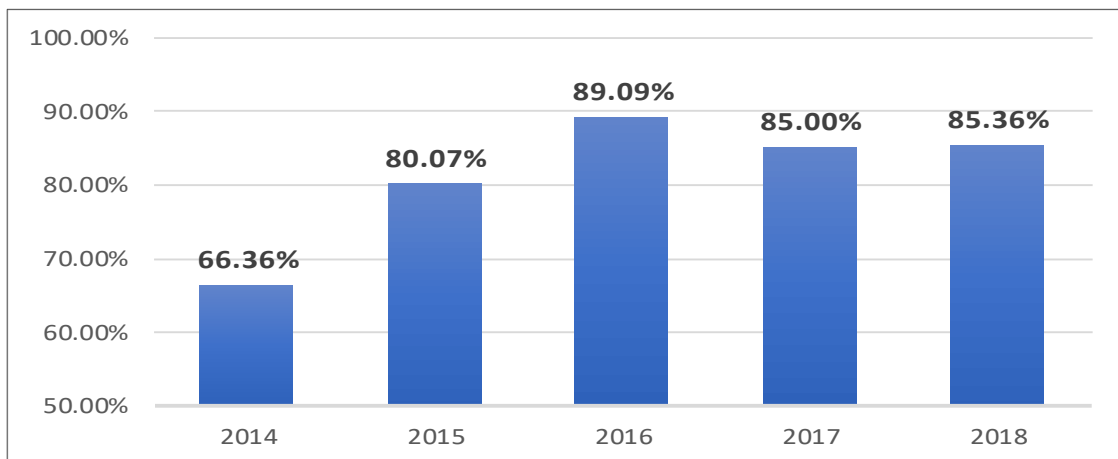
#####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6.16점으로 '17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평가도입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15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4개 기관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범주 또한 '14년 첫 평가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주요사업의 계량지표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8년도 경영관리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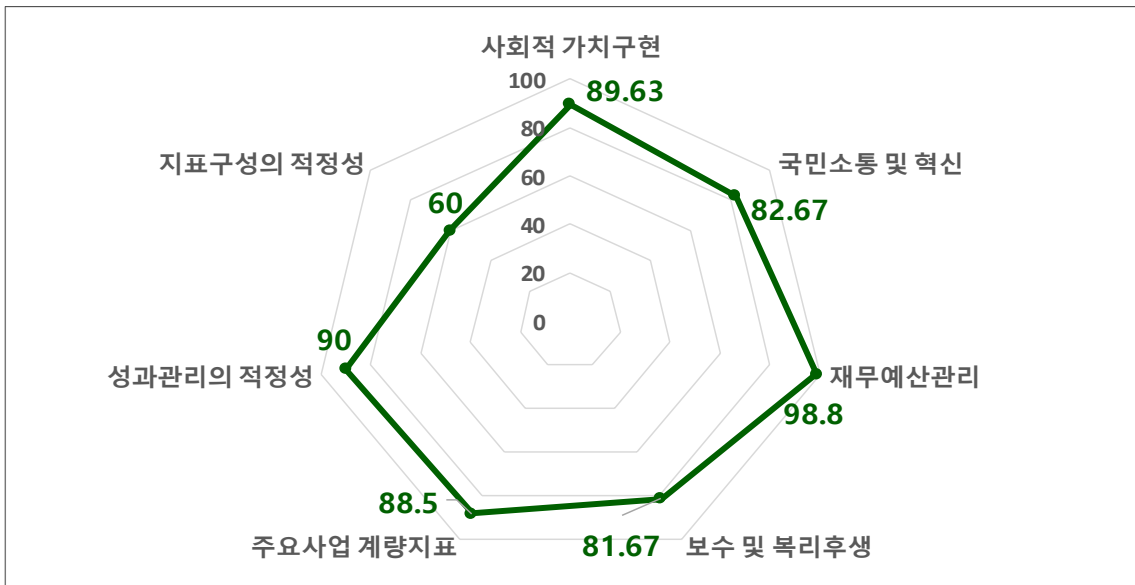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8년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재무예산 관리 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4대 지표 전체에서 모두 고른 성과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보수 및 복리후생이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축산물위생사업의 계량지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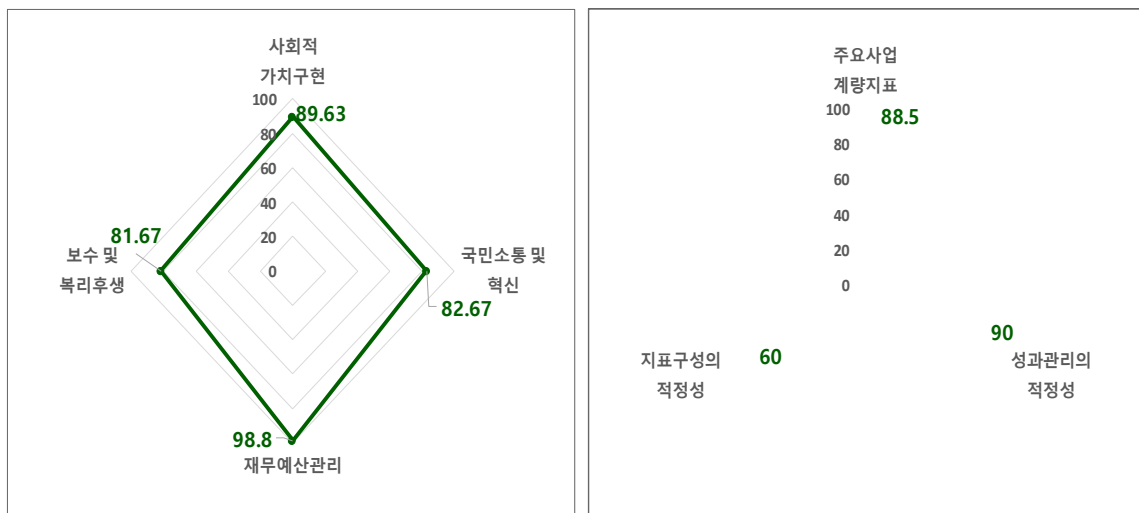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8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8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 (2) 범주별 주요평가

### ① 경영관리(39.21/45점)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다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활동 중심의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활동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행정안전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과제별 밸런스나 수준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별 계획이 있기는 하나 현재 수준보다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과거 발생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받은 부분은 없으나, 대부분 담당자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내부적 크로스체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대상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전사적 측면의 보수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주요사업(46.95/55점)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가축방역사업은 외부의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물 위생사업은 사업수행의 질적·양적 수행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현행 평가지표에 근거하면 업무수행은 양적으로 우수하며, 업무효율 또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업무수행 결과를 사무소별, 개인별 성과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의 전문성, 수행업무의 난이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주요사업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성격에 적합한 계량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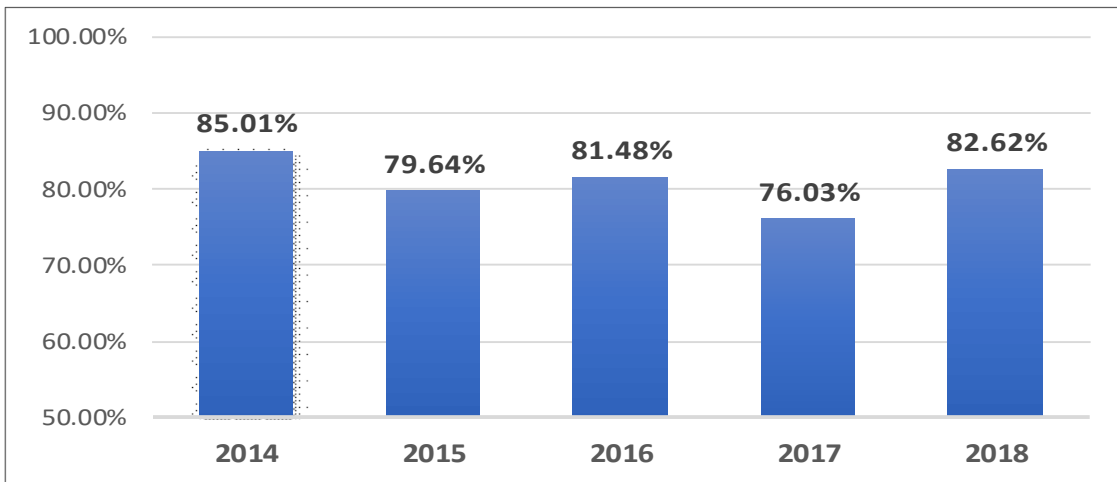


##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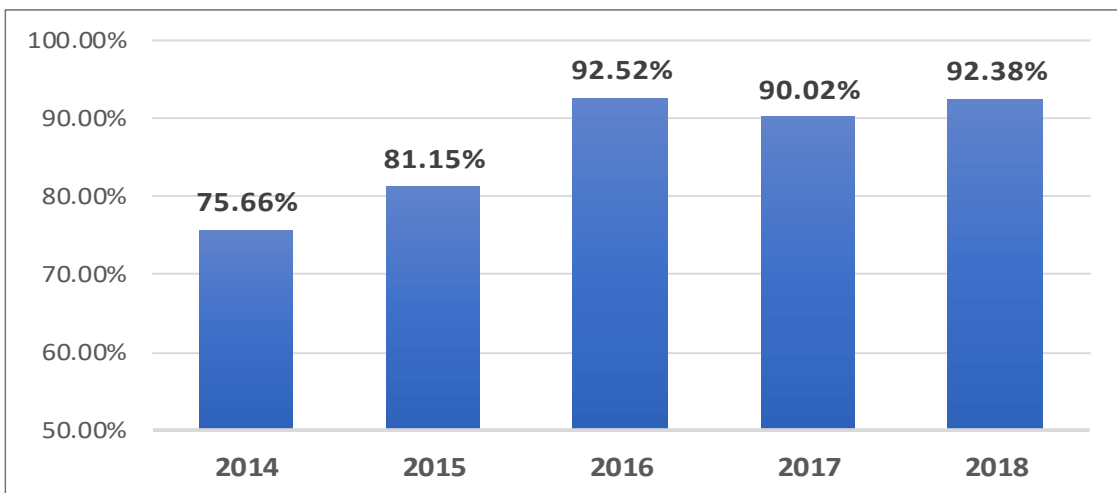
###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7.99점으로 '17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평가도입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14년 평가 이후 매년 등락을 보여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범주는 평가 3년 차 시점부터 90점 이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8년도 경영관리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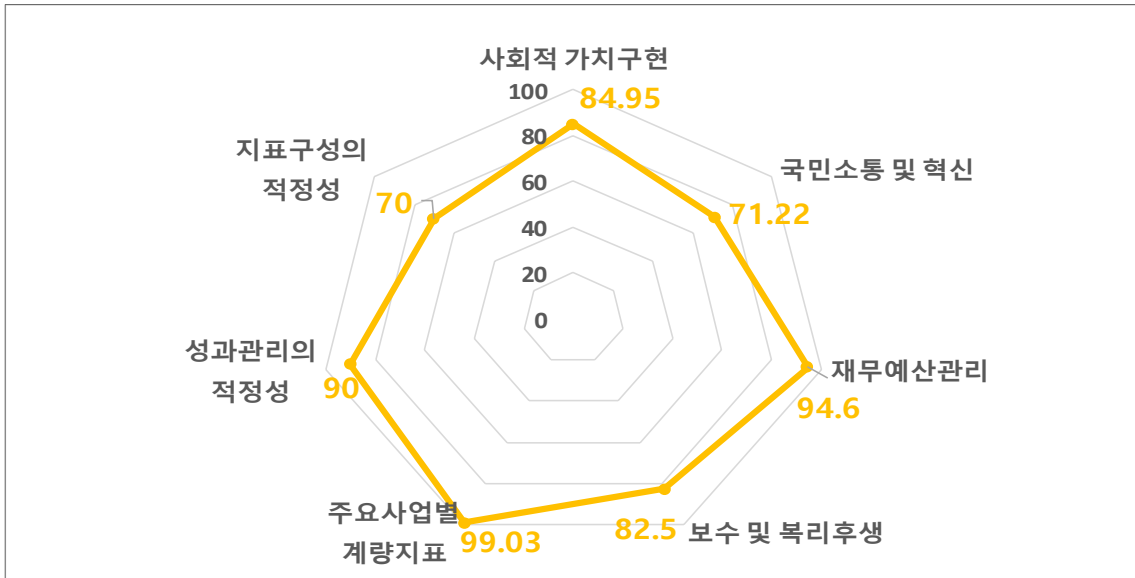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8년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소통 및 혁신 성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의 득점이 가장 낮게 나타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8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8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 (2) 범주별 주요평가

### ① 경영관리(37.18/45점)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질 개선의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종합 발전계획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활동 중심의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활동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혁신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 혁신과제의 보완·조치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제 자체의 난이도나 도전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2015~2017년 발생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받은 부분이 없으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해 공유·전파·인수인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직무 가치 중심의 보상체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전사 차원의 보수체계 개편이라기보다 특정 대상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주요사업(51.81/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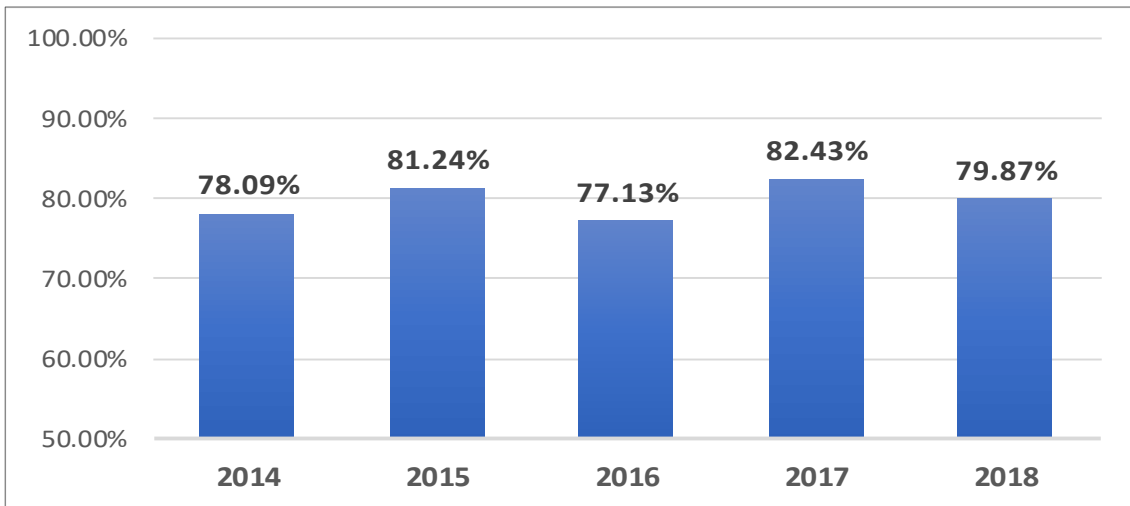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농업정책자금 관리 사업은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기관을 현장 검사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정책재해보험 관리 사업은 개선의 실질적 효과나 중요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류·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사업은 출자 규모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투자지원사업을 강화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지표의 연차별 편차가 다소 급격하게 변동할 요소가 있어 지표 설정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여 이에 따른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본 부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정책자금 투명성 개선 노력, 농업정책보험의 보장수준 개선 노력 지표는 2개의 세부 실적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는데, 실적의 속성이 다르므로 두 점수를 합해서 나온 점수는 의미가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③ 국제식물검역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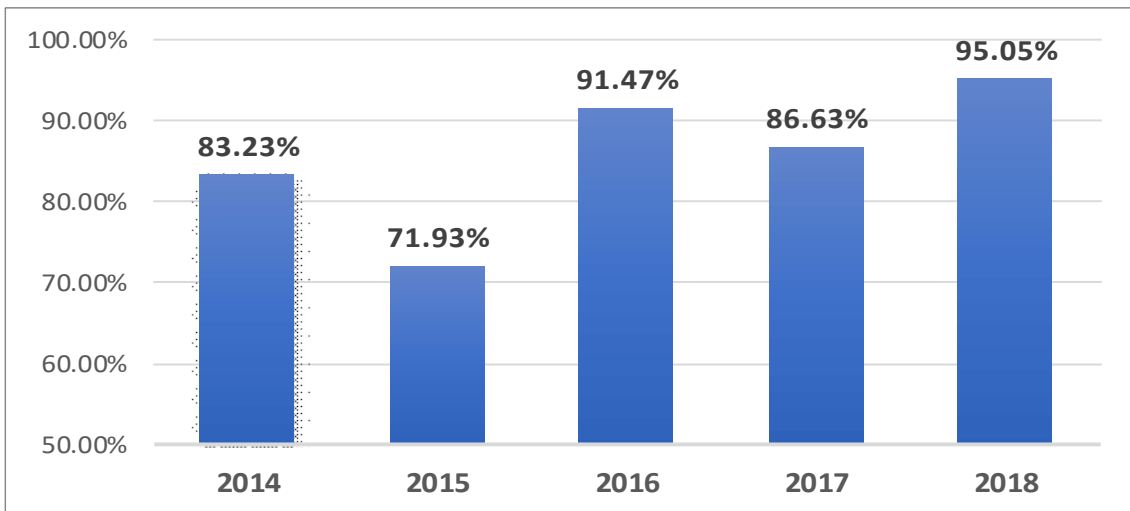
####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8.22점으로 '17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평가도입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범주 및 주요사업 범주 모두 '14년 평가 이후 매년 등락을 보여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8년도 경영관리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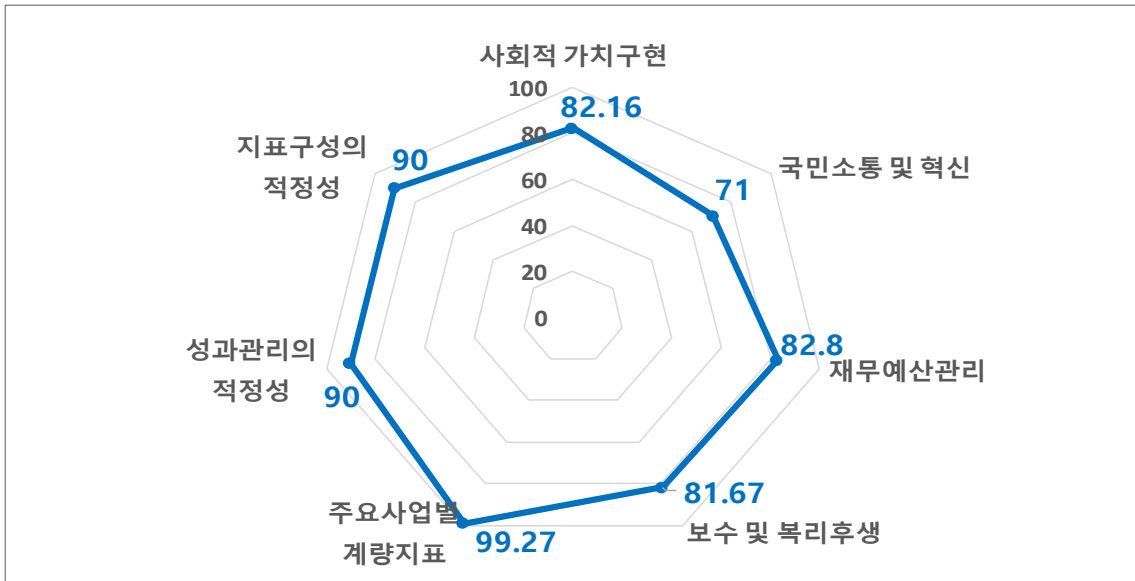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8년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소통 및 혁신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국민소통 및 혁신을 제외한 3대 지표가 모두 약 80점대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 또한 사업 지표구성, 성과관리, 사업성과 모두 90점 이상으로 높은 득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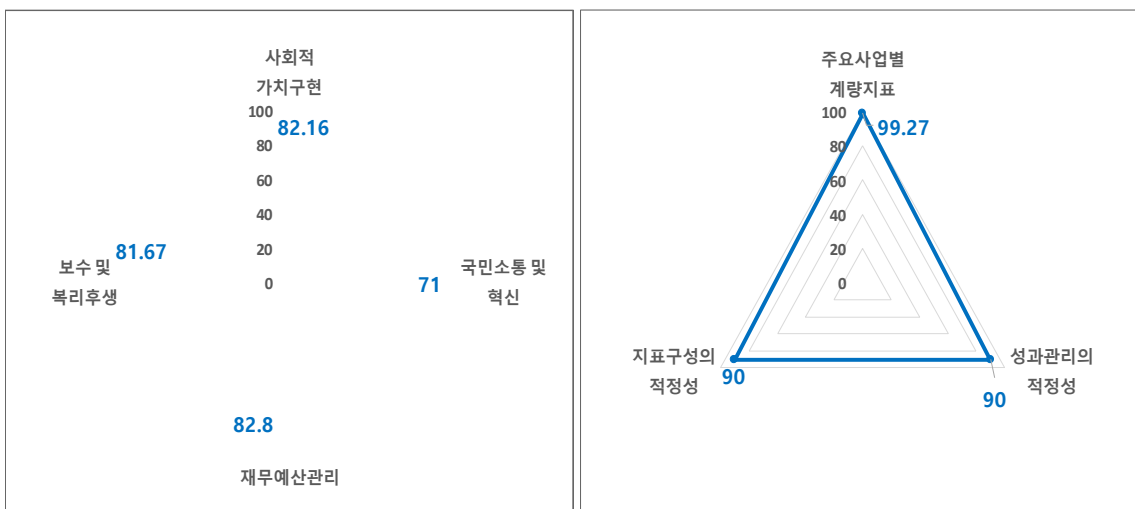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8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8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 (2) 범주별 주요평가

### ① 경영관리(35.94/45점)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주요사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분석이 필요하며, 각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요요소, 장애 요인, 극복방안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혁신과제를 수립하여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였으며, 의도했던 목적들을 일정 부분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이디어성 과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정부 보조금이 없으므로 기관 예산운영 특성상, 과편성 및 이월금 발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현재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운영·관리의 선제적 고민 및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운영 효율성 및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체계 개선 외에 단계적·점진적 보수체계 개선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주요사업(52.28/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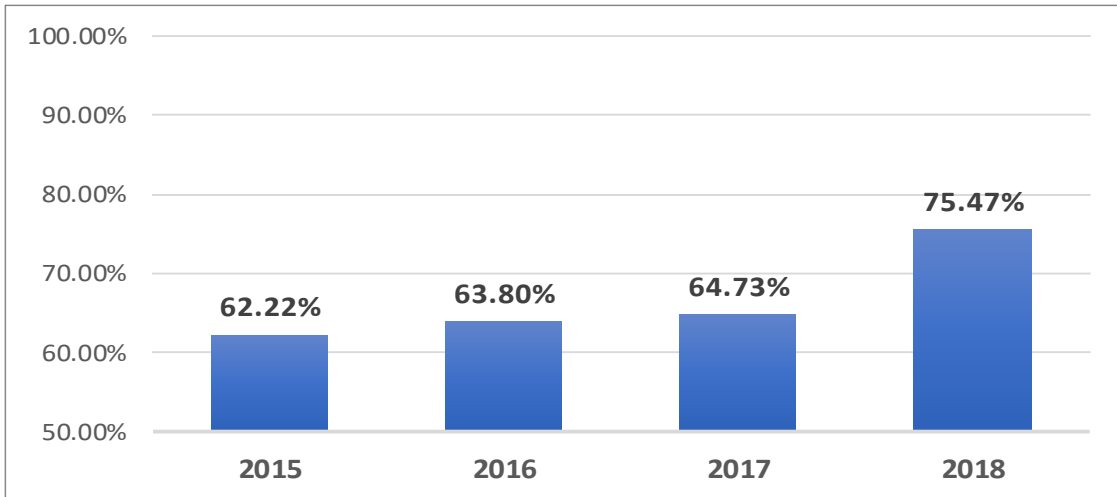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선박 AGM 검사 사업은 기관이 발행한 AGM 무감염증명서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GM 예찰 방제 사업은 국제적 경쟁력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재식용식물 검역 장소 관리 사업은 향후 병원체들의 오염 및 감염 등에 대한 검사 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늘어나는 업무량에도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들이 적절하게 수립 및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추진 효과가 저조한 유살 등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며, 실효성이 적절한 사업을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약제 사용비율과 약제 살포횟수가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지표로 평가되어 지표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지표에 대해 가중치 조정 및 대체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한식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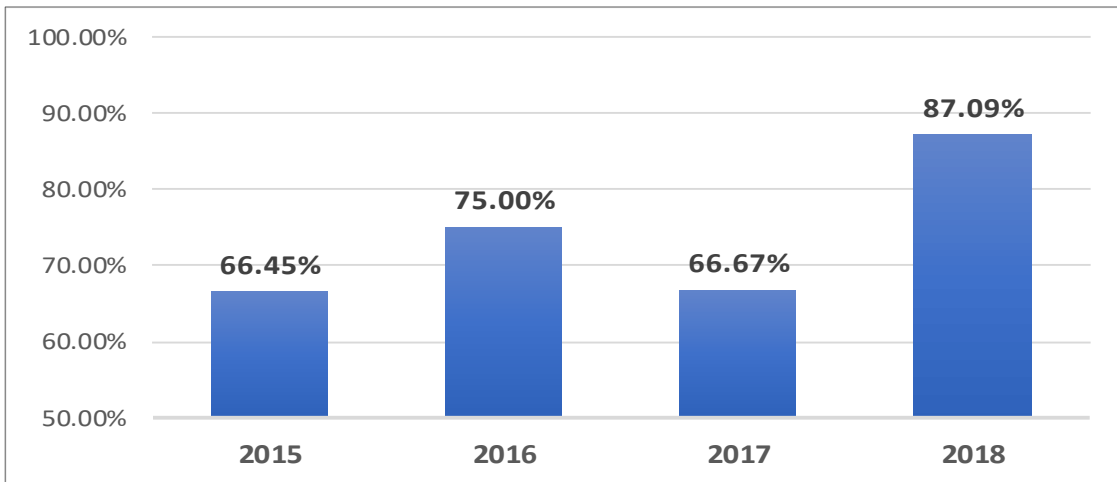
#####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1.95점으로 '17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17년 지적되었던 방안 경영 이슈가 반영된 감점 사항이 당해연도 평가에 복구된 부분임을 감안하여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15년 평가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사업 범주 또한 첫 평가 이후 성과가 대폭 상승하였으나 계량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진흥원 '18년도 경영관리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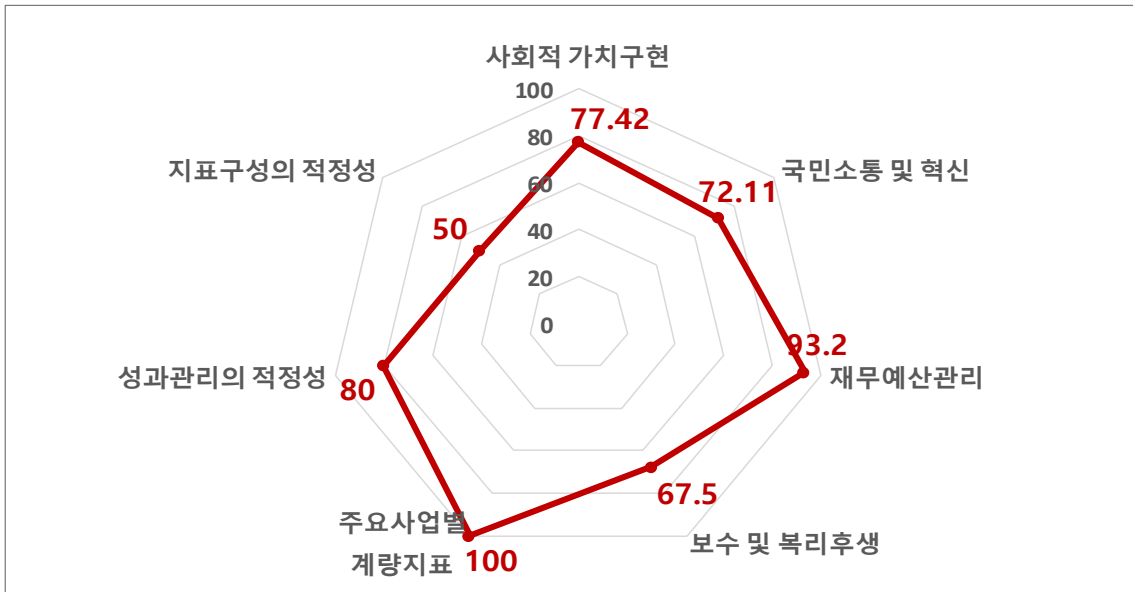
<한식진흥원 '18년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 및 재무예산관리를 제외한 5대 지표가 모두 낮게 나타나 집중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재무예산관리 1개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득점으로 나타나 경영관리 범주의 성과관리 노력이 요구되었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지표구성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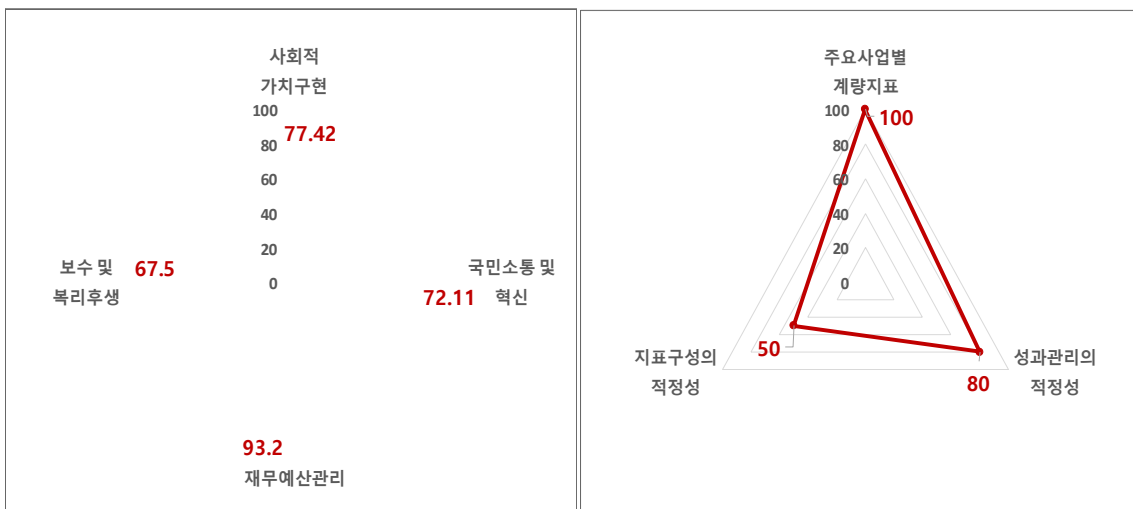
<한식진흥원 '18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한식진흥원 '18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 (2) 범주별 주요평가

### ① 경영관리(34.05/45점)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관업무 특성 및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각 노력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장애 요인의 식별 및 극복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혁신실행 과제들에 대해 구성원 공유, 점검이 잘 이루어졌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발생하였으나 과제 기획 자체가 내부 제도 혁신 부분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예산집행률이 과거 대비 하향되었으며, 기관 차원에서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단계에서는 기관운영 방향과 연계되면서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주요사업(47.90/55점)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의 목표치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제공 건수라는 단순 측정치가 평가의 주목적과 주요사업과의 연계성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추진 계획은 구체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선정된 목표, 지표, 계획 등의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개선의 필요성에도 평가결과 활용·개선 내용이 여전히 양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평가에서도 기관을 대표하는 계량지표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지표를 통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개선 노력이 부족하며, 도전적인 지표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Ⅲ.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 1.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b>1. 사회적 가치구현</b>					
	(1) 일자리 창출	3	A0	2.80	3	3.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A0	1.87	3	2.36
	(3) 안전 및 환경	2	B+	1.6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3.00
	(5) 윤리경영	3	B+	2.40		
	<b>2. 국민소통 및 혁신</b>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B+ C B+	2.20		
	(2) 국민평가(89.3점)				4	3.57
	(3) 경영정보 공시(별점 9.5점)				2	1.67
	<b>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b>					
	(1) 재무예산 운영·성과				5	4.94
	<b>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b>					
	(1) 보수 및 복리후생	4	C	2.40		
(2) 총인건비 관리				5	5.00	
(3) 노사관계	3	B+	2.40			
<b>경영관리 합계(39.21)</b>	<b>20</b>	<b>-</b>	<b>15.67</b>	<b>25</b>	<b>23.54</b>	
주요 사업	<b>1. 가축방역사업</b>					
	(1)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				8	8.00
	(2) 시료 채취(AI) 달성률				4	4.00
	(3) 농장 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				5	5.00
	<b>2. 축산물위생사업</b>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8	7.12
	(2)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5	2.43
	<b>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b>	18	A0	16.20		
	<b>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b>	7	C	4.20		
	<b>주요사업 합계(46.95)</b>	<b>25</b>	<b>-</b>	<b>20.4</b>	<b>30</b>	<b>26.55</b>
<b>총계</b>			<b>86.16</b>			

# 1 경영관리

## 1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 나. 평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17.10.25)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8년도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은 2017년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목표(252명)를 달성하였다. 전환심의위원회, 전환협의체를 통한 전환절차의 투명성,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인정된다.

#####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점 만점 중 3점을 획득하였다.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전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노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의 제공 측면에서는 관련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부분에 1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세부 활동별 등급 : 일하는 방식 개선: A+, 그 외 3개 세부항목: A0).
- 전년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평가단 지적(권고) 사항의 환류 노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방역·검역 등 주요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기관의 업무 발전 또는 확대 여부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성도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체계의 발전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인건비 예산반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기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축검사원 신규채용을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체계적인 정규직 전환절차에 따른 정규직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 직무 세분화를 통해 철새도래지 감시 요원 단기 일자리를 창출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 사회적 책무이행에 관한 활동의 지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근로 형태의 일자리 창출 기여 가능성 및 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혁신적 노력 발굴을 위한 구체적 여건분석을 강화(주요사업 연계 현 수준의 적절성, 발전 요소 식별 및 대응책 마련 등)하여 장애요소 식별 및 극복을 위한 노력의 제시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78.67	78.67	3.00	2.36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6 ~ 1.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6 ~ 1.5),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0.6 ~ 1.0), 총합계 3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인원 대비 4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24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인원 대비 80.2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4점 만점에 1.12점을 획득하였다.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실적 조사결과, 용역 대상자 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점 만점에 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가중치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0.6점,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1.4점,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1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장애인만 채용’의 실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이 이행되고 있으며, 2017년 용역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추진되었으나, 유형별 법적 지침 및 권고 사항, 현재 준수 실적자료를 성과에 포함하여 제시하는 체계 수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년 대비 향상 포함).

##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4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80.20%,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실적으로 용역 대상자 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달성하였다.

##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의 강조 측면에서는 청년채용 부분에 1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청년 등의 채용 노력: A+, 그 외 3개 세부항목: A0~B+).
-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 및 성과가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차별적 요인 배제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등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시행되었다. 그러나 단위 활동 중심의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각 활동의 추진 목표, 기대효과 등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블라인드 채용 및 채용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협의체 및 제도운영과 경력단절 여성 채용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기관의 추진 전략 및 계획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조사, 분석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제반 노력의 실질적 성과(outcome) 또는 기대효과를 주요사업의 양적, 질적 분야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직종별 사고 유형 진단을 통한 근무현장 안정성 개선 노력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신규지표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노력도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 수준의 취약점에 대한 분야별 진단, 분석 및 발전 방향이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산업재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며, 직종별 사고 유형 진단을 통한 근무현장 안정성 개선 등 직원안전사고 재해율 감소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국가 보안정책을 고려한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과 정보화 사업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악성 가축 질병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효과판단 기준이 모색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체 보안시스템 점검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주 용역 포함). 사무소별 여건/특성 분석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정보유형별 정보관리 적정수준 판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총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필수선택지표(4개): 중소기업생산품(0.3~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0.2~0.4), 여성 기업생산품(0.2~0.4), 장애인생산품(0.3~0.6),  
기관 자율선택지표(4개): 기술개발생산품(0.2~0.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0.6), 국가 유공자활용 사촌 생산품(0.2~0.4), 재정 조기 집행(0.3~0.5)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여성 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4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결과를 준용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여성 기업 생산

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다. 최근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82.45% 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6.85% 달성,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 구매총액의 19.27% 달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10.13% 달성,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8.31% 달성, 온누리상품권 실적은 경상경비의 1.57%를 달성하였다.
- 미준수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시되는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중점을 두는 사항을 자체판단한 결과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자율 선택지표 2개 선정의 근거로도 활용 가능). 또한,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관련 지침 등 평가 핵심사항의 보고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경영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노력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자체 세부관리지표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다(성과관리목표의 구체화 측면). 주요사업 관련 비리/부패 유형별 관리 노력이 체계적으로 성과보고서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자체감사 사례집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및 예방방안 등 분석적

접근 강화).

- 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처분누진제를 시행하며, 구매·계약 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점도 긍정적인 사항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고충처리제도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 노력의 성과는 전년 또는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제시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감사활동 등 감시, 견제 활동의 강화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또는 구성원이 인식하는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운영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② 국민소통 및 혁신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2018년 신규 추가된 평가지표로,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혁신목표 아래, 3대 방향, 7대 혁신과제, 10개 세부 혁신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 세부 혁신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특성과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을 연계하여 분야별로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의 틀을 너무 유지하려다 보니 과제별 밸런스나 수준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세부혁신과제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과제별 계획이 있기는 하나 아주 상세한 수준은 아니며, 계획을 보다 구체화 시킬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 일부 혁신과제 기획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나, 혁신과제에 대한 공유 및 점검·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과제에 대한 구성원 공유는 기관 홈페이지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해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7명으로 혁신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혁신추진의 동력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본부장을 중심으로 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 활동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세부 혁신과제 중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한 해외 악성 전염병 유입 차단’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는데, 2018년에 아시아까지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국내 미발생이 유지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대국민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2018년에 19건에 대한 평균 응답 소요기간이 5.3일로 과거 대비 노력한 부분이 확인되었다(‘16년 7건에 대해 평균 응답 소요기간 79일, ‘17년 16건에 대해 평균 응답 소요기간 7.2일).
- 혁신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혁신과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구성원 공유 및 혁신과제 추진에 대한 점검·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발생하였다. 대국민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과거 대비 성과가 향상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혁신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현재 수준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요소들을 개선하는 것과,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문제해결 중심의 개선과제와는 별도로, 기관에서 추구하는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미래상을 구체화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혁신과제를 점검하는 데도 점검 주기를 정례화시키면 좋을 것이며, 단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보다는 상황변화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C”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2) 국민평가(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9.3	89.3	4.00	3.57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나 주무 부처 주관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00점 만점).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9.3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3.57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양측농가의 불만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주효했으며, 특히 개선방안을 기관 내부요인과 기관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업무 전후 고객 알림 강화, 방문 농가 해피콜 추진, 점수 미흡도에 대한 본부 개선방안 수립, 본부 업무에 대한 농가 이해도 증진 노력 등 실제 의미 있는 개선방안들이 추진되었다고 판단된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불만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기관 차원에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기관 내부요인과 기관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라. 추세분석

-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5년도 85.20%, 2016년도 82.13%, 2017년도 83.80%에서 2018년도 89.30%로 전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고객 불만에 대응하고 고객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의 니즈 및 기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객이 서비스 이용 전에 기대했던 부분과 이용 후에 체감한 부분을 구분하여 어떤 부분에서 gap이 많이 발



생하는지 분석한다면 고객만족도 개선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에게 조사를 시행한다면, ①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이 느끼기엔 그렇지 않은 영역, ② 가축위생방역본부과 고객 모두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 ③ 가축위생방역본부는 잘 못 하고 있지만, 고객은 만족하고 있는 영역, ④ 가축위생방역본부과 고객 모두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 등이 분석될 것이다. 이처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된다면 보다 고객지향적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경영정보 공시(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9.5	66.70	2.00	1.67

####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18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가중치 1.0 기준 배점 X2). 2018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9.5점으로 평점 83.4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67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총 9.5점으로 2017년 15점 대비 향상되었다(미공시 3건, 허위공시 3건, 수정공시 2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휴가운영 기준 누락(위반수준 경), 징계제도 운영현황 첨부오류(위반수준 경), 신규채용 현황 수치 오기 입력(위반수준 경), 채용정보 선발인원 오기 입력(위반수준 경), 휴가운영 기준일 오기 입력(위반수준 경) 등으로 인해 별점 조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발생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담당자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조치로 담당자 교육 추진, 경영공시 등록사항의 정기 및 수시점검 강화, 경영공시 추진 프로세스에 혁신 성장실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시행하였다.

#### 라. 추세분석

-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2017년도 별점 15점에서 2018년도 별점 9.5점으로 전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경영공시 지적사항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경영공시 추진 프로세스에 혁신 성장실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경영정보공시 위반사항 및 사유를 살펴보면,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착오, 변경된 매뉴얼에 대한 미숙지,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발생했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유 및 내용을 잘 정리하여 공유·전파·인수인계함으로써,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지적받은 사항과 동일·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1)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8.498	98.80	5.00	4.94

#####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8.498%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94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예산집행률은 98.498%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2015년 98.501%, 2016년 91.925%, 2017년 99.306%).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본 결과, 12월의 예산집행률이 29.43%로 연말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된 것이 확인되었다. 원인 행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12월 21.58%의 예산이 집행(원인 행위 기준 4분기에 41%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계약 잔금 등이 12월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2015년도 98.501%, 2016년도 91.925%, 2017년도 99.306%, 2018년도 98.498%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 예산편성단계에서는 기관운영 방향과 연계되면서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편성단계에서 기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분석 및 편성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연내 발생이 예상되는 계약 잔액 및 집행 잔액에 대해 사용계획을 보다 체계화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전파하여 환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편성부터 집행, 환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성 및 집행 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정부의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선 의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 운영을 위해 ① 호봉제를 연봉제 보수체제로 개편, ② 직무 가치에 따른 차등 보상, ③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 설계 등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사 차원의 보수체계 개편

이러기보다 특정 대상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특히, 직무 가치에 따른 합리적 보상 강화는 1급~3급 등 보직자 중심으로 선 개편 되었으며, 4~7급 일반직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반직에 대한 체계개선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성과평가에 대한 현 수준 진단 및 내부의견수렴과 관련한 시점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준 진단 및 의견수렴 후 약 1개월 정도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부 권고안에 준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채용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4~7급 일반직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이 요구되며, 다양한 제 개선을 위한 수준 진단 및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점 변경이 요구된다.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의 활동 시점을 살펴보면 '18년 말에 실행된 것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 수립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 관리(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평가연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60% 이하	1.168%	100.00	5.00	5.00

###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18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1.17%로 기준치 2.6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1.17%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6%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및 2017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라. 추세분석

- 2015년도 2.457%, 2016년도 2.815%, 2017년도 0.403%, 2018년도 1.17%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6%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 간 협의 체계는 법령 기준에 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분기별 운영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총 4회 노사협의회가 운영은 되었으나 하반기에 집중하여 운영되었으며, AI, 구제역 등의 가축 질병으로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통의 최종 목표인 Feedback이 강화되어야 형식적 소통 채널 운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국단위 조직 특성 상 시도 단위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 특성 상 단순한 형식적 소통 채널보다 전국단위 현장 조직과 원활한 소통 및 이를 통한 환류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노무 담당자, 일반 직원별 노사관계에서의 역할 및 필요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18년 무분규 달성 및 '13년 이후 최초 임금협약의 성과가 나타났다.

- 탄력 근로제, 보상휴가제, 연차 저축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형식적인 제도로 남지 않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연차를 저축했다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저축을 통해 쌓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지 향후 활용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노사협의회 외에도 현장직이 많은 기관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많은 이슈가 존재하였는데, '18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직률이 높은 기관 특성상 보수체계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

### 1 가축방역사업

#### (1)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시료 채취 실적/목표 (계획) 채취 수) x100	목표 대 실적	342,965	366,576	100.00	8.00	8.00

#####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시료 채취(4대 질병) 목표치 342,965건 대비 실적치 366,576건으로 목표치 106.88%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8.00점 만점 중 8.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전체 342,965건의 시료 채취를 목표로 수립하였으나 23,611건의 시료를 더 채취하여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기 일부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하여 농장 및 여러 축산현장 출입이 제한되었음에도 목표로 한 실적을 성실하게 완료하였다.

##### 라. 추세분석

- 시료 채취(4대 질병) 2015년도 목표치 635,888건 대비 실적치 677,090건, 2016년도 목표치 560,330건 대비 실적치 606,751건, 2017년도 목표치 339,532건 대비 실적치 371,131건, 2018년도 목표치 342,965건 대비 실적치 366,576건을 달성하여 지속해서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구제역에 대한 시료 채취는 소의 경우 한우, 젖소와 육우를 각기 구분하여 사업 물량을 확정하여 수행하고 추진성과에도 구분하여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번식우

와 비번식우를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관한 결과 또한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사슴이 질병 전파의 매개체나 숙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년도 사업 물량에 사슴 검사 포함 권고한다. 상급기관과 논의(필요) 후 도축장에서 도축 전 혈액을 채취하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방법 확정 전(현재: 시·도 가축 방역기관에서 물량을 선정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통보) 본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과 각 시·도의 담당자들의 논의하여 지역별 질병 발생 위험성을 반영하여 물량을 확정하면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시료 채취(AD) 달성률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시료 채취 실적/목표(계획) 채취 수) x100	목표 대 실적	131,715	146,373	100.00	4.00	4.00

###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 예찰 검사 추진 계획’에 의해 계획된 시료 채취(AD)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시료 채취(AD) 목표치 131,715건 대비 실적치 146,373건으로 목표치 111.1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전체 131,715건의 시료 채취를 목표로 수립하였으나 14,658건의 시료를 더 채취하여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6년 126%, 2017년 107%의 실적과 비교하여 유사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초기 충북과 충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 농가에서 발생하여 시료 채취에 상당한 물리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목표한 실적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라. 추세분석

- 시료 채취(AI) 2015년도 목표치 112,310건 대비 실적치 106,578건, 2016년도 목표치 115,345건 대비 실적치 124,270건, 2017년도 목표치 110,675건 대비 실적치 139,567건에서 2018년도 목표치 131,715건 대비 실적치 146,373건으로 전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사업내용 확정 전 상부 기관과의 능동적 사전 회의를 통하여, 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목표치를 확정된 후, 사업을 수행할 것 권고한다. 야생조류 포획 등은 수반되는 수고 및 지출되는 경비에 비하여 그 기대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삭제 등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야생조류 분변 채취의 경우 계절적 및 지역적 위험도를 반영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절 전에 사업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기타 타 지표(시료 채취 항목)들도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인지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목표치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상급기관과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3) 농장 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예찰실시결과 보고실적/ 목표(계획) 건수 X100	목표 대 실적	5,784	6,537	10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농장 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농장 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률 목표치 5,784건 대비 실적치 6,537건으로 목표치 113.02%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전체 5,784건의 예찰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6,537건의 예찰을 시행하여 목표치 이상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기 일부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하여 농장 및 다른 축산현장 출입이 제한 되었음에도 목표로 한 실적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농장단계에서의 충실한 예찰 업무수행 결과로 국내 가축사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질병 발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라. 추세분석

- 농장 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률 2015년도 실적치 6,404건, 2016년도 목표치 8,403건 대비 실적치 7,159건, 2017년도 목표치 5,016건 대비 실적치 6,252건, 2018년도 목표치 5,784건 대비 실적치 6,537건으로 목표치 이상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 사업대상 축종에 사슴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업대상 농장을 각 축 종별 HACCP를 인증받은 농장과 HACCP를 인증받지 않은 농장을 구분하여 사업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도출하면 방역정책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검토하여 상부 기관과 논의를 권고한다.

## 2 축산물위생사업

###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이상보고 건수/도축검사 두수) x100	목표부여 (편차)	33.819	32.328	88.95	8.00	7.12

나. 평가내용

-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축산물위생사업 달성률 목표치 33.819건 대비 실적치 32.328건으로 목표치의 95.59%를 달성하였고, 평점은 88.95점으로 지표 가중치 8.00점 만점 중 7.12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현행 지표에 의하면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도축검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의 노력은 검사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신규교육,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추세분석

- 축산물위생사업 달성률 2015년도 21.775건, 2016년도 28.190건, 2017년도 30.220건, 2018년도 32.328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실적이 향상되었다.
- 현행 지표인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은 업무수행의 질적·양적 수행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축산물위생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선 및 대체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 자체적으로 지표개발 매뉴얼을 참고하여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용역과제수행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본부의 사업 성격을 적절히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2) 수입 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이상 보고 건수/현물검사 건수) x100	목표부여 (편차)	9.225	8.029	48.63	5.00	2.43

#### 나. 평가내용

- 현물검사(수입축산물) 이상보고 향상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입 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목표치 9.225% 대비 실적치 8.029%로 목표치의 87.04%를 달성하였고, 평점은 48.63점으로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2.4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충실한 업무수행으로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검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료 채취 및 관능검사방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은 검사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신규교육,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라. 추세분석

- 현물검사 이상보고 적발률은 2015년 7.191건, 2016년 7.846건, 2017년도 8.604건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에는 8.029건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다소 하락하였다.
- 지원본부에서 수행하는 현물검사는 관능검사 위주이고 시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송부하는 체계로 진행되므로, 이상보고 향상도만을 평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처리하는 업무의 부하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물위생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선 및 대체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 자체적으로 지표개발 매뉴얼을 참고하여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용역과 제수행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본부의 사업 성격을 적절히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 ③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 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새로운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검사업무는 다양성보다는 양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함께 검사업무는 정확성을 기본으로 요구하므로 질적·양적 업무수행은 매우 힘든 과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정업무량에 따른 검사원 충원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도축 물량과 수입축산물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농장과의 협력체제로 도축검사에서 발견되는 병변과 관련된 정보를 농장에 제공하고 농장은 관련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예방적 관리를 하도록 시도하는 사업은 매우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업무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 관리는 방역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하므로, 돼지 열병 시료 채취 업무를 축산물위생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성에 따라 단계화하고, 이를 달성한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면 사기진작으로 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현행 평가지표에 근거하면 업무수행은 양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역 분야에 해당하는 돼지 열병 방역활동이 추가되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방역팀 권역별 재편성과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질병 검색 증가 등 업무효율이 개선되었다. 도축검사 정보의 농장 환류 사업은 수행 기간이 짧아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도축검사에서 밀크반점을 지표로 파악된 사항을 농장과 교류하여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사업은 매우 훌륭한 점으로 판단된다. 차기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농장의 가축 사양관리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도축장 미생물 검사강화로 HACCP 운영이 개선되었다는 해석은 증거가 미흡하므로, 미생물 오염도 수치를 제시하여 오염수준이 감소/증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ACCP 관련 용어는 HACCP 고시에 따라야 하므로, ‘HACCP 위생관리자’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HACCP 평가 요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현행 HACCP 교육과정에 따라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돼지 열병 관련 업무의 성과는 결과적으로 질병 발생을 막았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교육 프로그램 강화로 전문성 제고는 이직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업무의 일정성 유지에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HACCP 조사평가 참여로 업무수행 범위를 다양하게 넓히며,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시료 채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검사물량 증가 유도는 매우 고무적인 활동으로 판단된다.
- 연구용역은 농식품부의 요구사항만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사업본부에서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평가지표 개발 사업은 다음 연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권고한다. 지원본부는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제공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정한다면 업무수행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축검사에서 밀크반점 검출 농가와와의 협력체제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도축검사 결과를 농장과 연계하여 농장의 사양관리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본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검사업무는 지원본부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내는 업무이므로, 업무 성격상 성과관리를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수입 사업의 목표 100% 달성하였으므로 환류 성과는 기대치를 충족하였다.
- 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도축검사 결과를 이용한 농장과의 재발 방지 협업체계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지자체와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업무수행 결과를 사무소별, 개인별 성과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 수행업무의 난이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다. 농장의 방역 정보시스템과 도축장의 도축검사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은 실효적인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부분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수행하였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 방향의 강화를 대비하여 앞으로도 계획 수립부터 환류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 위생 분야는 지원본부의 업무 성격상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원료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며,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도축검사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축검사 결과를 활용한 농장에서의 사양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며, 시범사업으

로 전환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얻는다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시료 채취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의 교류확대로 HACCP 개념을 농장방역시스템관리에 활용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축장 및 농장 HACCP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HACCP 사후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장과 도축장의 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관리 적정성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검토하였다.
- 현재의 계량지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대표 사업인 가축 방역사업 및 축산물 위생사업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 방역사업의 3개 지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축산물위생사업의 2개 지표는 사업 성격에 적합한 계량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축 방역사업의 경우 현재 국가에서 각 주요 질병 모니터링 축종으로 정한 가축 외에 보균 역할을 할 수 있는 타 축종(예: 사슴 및 흑염소 암컷)도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축산물위생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에 맞는 계량지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축의 이상 상태(질병 여부)는 농장에서의 사양관리 상태에 따라서 가축건강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상 보고율을 지원본부의 실적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보고 향상도는 검사원의 숙련도 및 장비 등의 정확도와 관련되지만, 주로 수행하는 관능검사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수입물량 증가, 다양한 수입품목에 대비한 검사방법, 시료 채취, 업무의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은 계량지표에 대해서 ① 목표 대 실적, ②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목표 대 실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지표는 모두 2018년 목표치를 전년 목표치 대비 일정 목표 수치를 상향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목표치 설정 방식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목표치 설정의 기준은 과거 목표가 아닌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지표는 현재 과거 3개년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최고목표와 최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향후 누적된 DB에 따라 과거 5개년 실적을 활용하여 편차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달성 가능하며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치 설정 시 과거 목표치 기준이 아닌 최소한 과거 3개년 실적의 평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지표구성 적정성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b>1. 사회적 가치구현</b>					
	(1) 일자리 창출	3	B+	2.67	3	3.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A0	1.83	3	2.70
	(3) 안전 및 환경	2	B0	1.40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3	2.14
	(5) 윤리경영	3	B+	2.40		
	<b>2. 국민소통 및 혁신</b>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C B0	2.00		
	(2) 국민평가(89.3점)				4	3.08
	(3) 경영정보 공시(별점 9.5점)				2	1.33
	<b>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b>					
	(1) 재무예산 운영·성과				5	4.73
	<b>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b>					
	(1) 보수 및 복리후생	4	B0	2.80		
(2) 총인건비 관리				5	5.00	
(3) 노사관계	3	B0	2.10			
<b>경영관리 합계(37.18)</b>	<b>20</b>	<b>-</b>	<b>15.2</b>	<b>25</b>	<b>21.98</b>	
주요 사업	<b>1. 농업정책자금 관리</b>					
	(1) 정책자금 투명성 개선 노력				10	10.00
	<b>2. 농업재해보험 관리</b>					
	(1)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수준 개선 노력도				7	7.00
	(2) 보험사업점검 기관수 증가율				3	3.00
	<b>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b>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5	4.71
	(2)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				5	5.00
	<b>3.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b>	18	A0	16.20		
	<b>4.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b>	7	B0	4.90		
<b>주요사업 합계(50.81)</b>	<b>25</b>	<b>-</b>	<b>21.1</b>	<b>30</b>	<b>29.71</b>	
<b>총계</b>			<b>87.99</b>			

## 1

## 경영관리

## 1]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 나. 평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17.10.25)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8년도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점 만점 중 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 '17.10.25) 상 18년 전환대상은 2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기간제 1명, 파견인력 4명, 용역 3명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인력 중 2명이 전환대상).
- 노사협의를 통해 기존 직원에게 가산점 부여 후 공개경쟁 채용 형식을 거쳤으며, 경쟁결과 기존 직원은 탈락하고 신규직원 2명이 채용되었다. 간접고용 상태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일자리 창출 결과를 반영하여 실적으로 인정되었다(연차별 전환계획 2명을 기준으로 판단).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외부전문가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전환 대상 심의를 노력하였다. 그러나 간접고용인력 고용 사유의 타당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1명의 전환 예외 적용 사유와의 차별성 또는 청년 선호 일자리 여부 등 제시).

####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2018년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점 만점 중 3점을 획득하였다.

####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의 제공 측면에서는 관련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부분에 1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세부 활동별 등급 : 일하는 방식 개선: A+, 그 외 3개 세부항목: A0~B+).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주요사업을 포함한 종합적 측면에서 기관의 종합발전계획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제반 노력의 지속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민간일자리 창출 포함), 비정규직 운영 제한제도의 장·단점도 기관의 미래발전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 민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통한 체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주 52시간 제도를 조기 도입하였고, 간접고용 유발에 대한 노력이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구현 측면이 반영된 기관의 종합발전계획(주요사업 포함) 수립과 세부 요소별 장애요소 식별 및 극복방안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전년도 관련 분야 외부평가, 또는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 개념 가시화가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90.00	90.00	3.00	2.70

####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6 ~ 1.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6 ~ 1.5),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0.6 ~ 1.0), 총합계 3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인원 2명 대비 5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인원 5명 대비 1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5점 만점에 1.5점을 획득하였다.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의 적용 대상은 일반 용역 중 단순 용역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가 없으므로 지침 위배사항이 없어, 지표 가중치 0.9점 만점에 0.9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가중치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1.5점,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1.5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적용 가능한 항목의 최대 가중치 부여 후 잔여점수는 만점 처리)
- 장애인 의무고용 등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관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법정 고용인원 5명은 기고용되고 있으며(상기 근로자의 7% 수준), 용역근로자 보호 대상인 단순 용역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5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100%,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실적은 용역 대상자가 없어 지침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통합 노력이 가시화되어 있으며, 법정 준수사항 이행을 노력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기관 자체의 업무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 및 적극적 채용을 노력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의 강조 측면에서는 청년채용 부분에 1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청년 등의 채용 노력: A+, 그 외 3개 세부항목: A0~B+).
-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블라인드 채용 포함)에 따른 채용 절차 강화 등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여건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세부활동별 목표의 타당성, 구체성의 제고가 요구된다. 단위

활동 중심의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각 활동의 추진 목표, 기대효과 등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부분적으로 관리).

- 블라인드 채용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청년고용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의 구체적 전략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여성 관리자 확대 연차별 계획 수립 및 비정규직 여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승진이 불가한 기능직·사무직군에 대하여 일반직 전환 기회를 제공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채용 상의 차별적 요소 존재 가능성 분석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며, 제시된 노력과 성과가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기관 주요 업무 및 여건분석과 연계). 세부 평가 내용의 핵심을 대변할 수 있는 관리지표 설정이 검토되어야 하며, 각 활동의 지속 추진을 위한 필요요소, 장애 요인, 극복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0” 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재난 유형도 설정되고 있으나, 조직의 주요사업과 연계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 사고의 유형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농어민에 대한 안전물품, 예방 도구 지원 등의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노력도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 수준이나, 현 보안관리 수준의 취약점에 대한 분야별 진단, 분석 및 발전 방향이 더욱 구체적



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 기관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재난관리 기반체계 구축과 업무 특성(출장 빈번)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노력을 수행하였고, 부서별 업무 내용을 고려한 재난관리 임무 부여 노력과 국가보안정책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역량 제고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정보보안 외부평가를 통한 취약요소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보보안 취약점을 반영한 용역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조직의 근무 여건,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난, 사고 유형의 구체적 분석 및 대응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각종 노력의 구체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지표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자체 보안관리 업무 수행체계 정립 및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업무 특성을 고려한 정보유형별 정보관리 적정수준 판단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 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71.33	71.33	3.00	2.14

#####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 \*필수선택지표(4개): 중소기업생산품(0.3~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0.2~0.4), 여성 기업생산품(0.2~0.4), 장애인생산품(0.3~0.6),
- 기관 자율선택지표(4개): 기술개발생산품(0.2~0.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0.6),

국가 유공자활용 사촌 생산품(0.2~0.4), 재정 조기 집행(0.3~0.5)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중 0.53%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071점을 획득하였다.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중 4.85%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388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중 0.8%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중 0.48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 생산품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중 0.08%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001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4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결과를 준용하였다.

####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67.23% 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0.53% 달성,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 구매총액의 4.85% 달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0.80% 달성, 기술개발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중소기업 물품 총 구매액의 29.06% 달성, 온누리상품권 실적은 경상경비의 0.08%를 달성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실적은 구매 목표를 100%로 달성하였으나,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관련 지침 등 평가 핵심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시가 필요하다. 미준수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시되는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중점을 두는 사항을 자체판단한 결과 제시가 바람직하다(자율선택지표 2개 선정의 근거로도 활용 가능).

###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 윤리경영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윤리경영체계 구축 개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업무와 연계하여 발생 가능한 비리, 부패 유형의 식별 및 유형별 관리체계 정립은 타당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의 내실적 효과가 인정된다.
- 청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구매·계약 분야 취약부문 발굴 및 계약규정 정비를 통한 공정성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인증을 획득하여 체계적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권존중을 위한 인권경영체계 정립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각 활동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성과제시체계 발전이 필요하다. 감사 활동 등 감시, 견제 활동의 강화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또는 구성원이 인식하는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운영의 적정성 확보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충처리제도의 중점 적용 분야 확대를 위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식을 조사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활동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② 국민소통 및 혁신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2018년 신규 추가된 평가지표로,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지배력,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농업금융원 혁신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제고’ 라는 혁신목표 아래, 3대 분야 11개 혁신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 6월에 행정안전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에 혁신과제를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하여 대외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시행하였다. 다만, 시민참여혁신단의 운영목적 및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립된 혁신추진계획은 책자로 인쇄하여 구성원에 배포하는 등 혁신계획에 대해 구성원 공유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혁신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개 과제당 2~3page 수준에서 목적, 배경, 추진 방향 등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 외에 Action Plan 단위에서 세부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혁신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은 매월 시행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담당자 수준의 검토라고 보이며,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 혁신과제의 보완·조치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 혁신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과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과제 자체의 난이도나 도전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중점추진과제 성과로 ‘농업정책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과 관련하여 보험상품 사전승인 제도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농금원에서 보험사의 상품안을 사전 승인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과거 대비 농업인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에는 농금원에서 보험사의 상품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보험상품을 기획하는 수준까지 발전된다면 좋을 것이다.
-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보급을 위해 ‘18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기획을 실시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추진 계획에 맞게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대국민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2018년에 27건에 대한 평균 응답 소요기간이 8.37일이며, 법정기한 미준수가 0건으로 과거 대비 노력한 부분이 확인된다( '16년 21건에 대해 평균 응답 소요기간 7.2일, 법정기한 미준수 1건/ '17년 21건에 대해 평균 응답 소요기간 8.4일, 법정기한 미준수 2건).
- 혁신과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구성원 공유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발생하였다. 대국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과거 대비 성과도 향상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혁신추진계획을 PDCA 관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획을 수립함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요소들을 개선하는 것과,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문제해결 중심의 개선과제와는 별도로, 기관에서 추구하는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미래상을 구체화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 및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보다는 상황변화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 혁신단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먼저 목적 및 방향,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부분이 충족되어야 형식적인 운영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C”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 (2) 국민평가(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77.1	77.1	4.00	3.08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나 주무 부처 주관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00점 만점).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77.1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3.08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 고객만족도 점수는 77.1점으로 전년과 점수는 동일하나, 등급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자금관리는 76.4점으로 전년 대비 7.6점이 하락하였으며, 재해보험관리는 78.7점으로 전년 대비 5.4점 상승, 모태펀드 관리는 76.4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하였다.

### 라. 추세분석

- 2018년 고객만족도 점수는 77.1점으로 전년과 점수는 동일하나 등급은 하락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기관 차원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별로 하락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 부분이 우수하다. 보험 분야에서 자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 불만 요인을 파악하고 조치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고객만족도 개선계획이 현재 수준보다 구체화가 필요하며, 고객 만족과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강화하여 고객의 만족 요인 및 불만족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 전에 기대했던 부분과 이용 후에 체감한 부분을 구분하여 어떤 부분에서 gap이 많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면 고객만족도 개선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해 동일한 문항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에게 조사를 시행한다면, ① 농금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이 느끼기엔 그렇지 않은 영역, ② 농금원과 고객 모두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 ③ 농금원은 잘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객은 만족하고 있는 영역, ④ 농금원과 고객 모두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 등이 분석될 것이다. 이처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된다면 보다 고객지향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3) 경영정보 공시(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11.5	66.70	2.00	1.33

####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18년도 경영정보 고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가중치 1.0 기준 배점 X2). 2018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11.5점으로 평점 66.7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2점 만 점 중 1.3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총 11.5점으로 2017년 6.5점 대비 증가하였다. 모두 허위공시로 인해 별점을 받았으며, 미공시 및 지연공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 총 신규채용 수치 오류(위반수준 경), 정규직 경조비 및 합계 수치 오류(위반수준 중), 비정규직 항목 및 소계 수치 오류(위반수준 중) 등으로 인해 별점 조치를 받았다. 2015~2017년 발생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추세분석

-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2017년 6.5점에서 2018년도 11.5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위반사항 및 사유를 살펴보면,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착오, 변경된 매뉴얼에 대한 미숙지,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그간 발생했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유 및 내용을 잘 정리하여 공유·전파·인수인계함으로써,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지적받은 사항과 동일·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1)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3.15%	94.52	53.00	4.73

#####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3.1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7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예산집행률은 93.15%로 과거 대비 향상되었으며,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 67.04%, 2016년 82.45%, 2017년 90.73%).
-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9월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 확인하였으며, 9월 말 시점의 집행률이 41.5%로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인 행위 기준으로 보면, 약 75% 수준으로 크게 나쁘지 않으며, 계약 잔금들이 11, 12월에 집중되면서 3분기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2015년도 67.04%, 2016년도 82.45%, 2017년도 90.73%에서 2018년도 93.15%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존 예산집행 사항들을 분석하여 과다·과소 편성을 최소화하고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예산집행 단계에서 모니터링의 체계화가 요구되며, 주기적인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사업 담당자들에게 알람을 주고, 보완·조치계획을 요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편성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관장 주관으로 예산편성위원회 등을 운영하기를 권고하며, 이를 통해 기관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성 및 집행 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정부의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선 의지에 따라 직무 가치 중심의 보상체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전사 차원의 보수체계 개편이라기 보다 특정 대상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전사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 추진 및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준정부기관 공동학습그룹에 참여하여 외부 협력체계 강화 및 이를 통한 정보획득 등의 활동은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활동들이 최종적으로는 기관의 보수체계 설계 및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테마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4인 가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 혜택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직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 신설 및 개선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제고 및 이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2019년에 최초로 발생하며 정부 권고안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2025년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도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25년의 경우 기존 직원 인건비 일부를 활용하는 등 재원조달 계획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 공동학습그룹 참여를 통해 외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타 기관 운영사례 조사/벤치마킹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준정부기관 모임에 참여하여 보수체계 및 복리후생 관련 정보획득을 위한 노력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전사적인 합리적 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파견직 임금체계 개선, 임금연공성 개선(3급 대상 승진 역량평가 신설), 기능직·사무직 직군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노력 및 성과는 있었으나 전사 차원의 노력 및 성과 제고가 요구된다. 내부만족도 조사결과 보상/보수체계 만족도가 53.97점으로 ‘17년 52.12점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부서별 만족도(최대 66.67 vs 최소 36.67) 및 직급별 만족도(최대 60.61 vs 최소 44.44)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기관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와 직원이 인식하는 Gap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복리후생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력이 형식적인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 관리(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평가연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60% 이하	2.55%	100	5.00	5.00

###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18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55%로 기준치 2.6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55%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6%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및 2017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라. 추세분석

- 2015년도 0.83%, 2016년도 2.29%, 2017년도 3.34%, 2018년도 2.55%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6% 이내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을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 간 협의 체계는 법령 기준에 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1회, 총 4회의 정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안전 및 이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노사협의회 외에도 노사공동발전협의회를 추가로 운영하여 실무자 중심의 상향식 주요 안전 발굴에 노력하였다. 노사협의회와 노사공동발전협회의 역할이 및 참여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면 더욱 실효성 있는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협의회와 노사공동발전협회의 노측위원을 다양화하고 운영 시기 또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한다면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통의 최종 목표인 Feedback이 강화되어야 형식적 소통 채널 운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 및 일반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확대( '17년 11건 → ' 18년 15건)하였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내용의 질적 향상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노사협의를 통해 ① 합리적 보수체계, ② 행복한 일터 만들기, ③ 공정한 인사 운영 등의 구체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보수체계의 경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대표성과로 유연근무제 설계 및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범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유연근무제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 '상급자의 눈치'가 42.9%(시범 운영 참여자 7명 중 3명)를 차지하고 있어 형식적인 제도로 머물지 않도록 확대 운영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식적 노사협의회 외에 노사공동발전협의회를 추가로 운영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및 노사공동발전협회의 명확한 역할 및 운영 시기를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통 채널별 Feedback 강화를 통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

### ① 농업정책자금 관리

#### (1) 정책자금 투명성 개선 노력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①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 x 0.6 + ②1인당 검사일 수 비율 x 0.4	목표부여 (편차)	12.12	13.68	60.00	6.00	10.00
		49.19	51.41	40.00	4.00	

##### 나. 평가내용

-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 목표치 12.12% 대비 실적치 13.68%로 목표치 11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6.00점 만점 중 6.00점을 획득하였다. 1인당 검사일 수 비율 목표치 49.19% 대비 실적치 51.41%로 목표치 10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현장검사 시행 기간 비율이 1인당 검사일 수 비율이 편람에 맞게 계산되고 적합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두 가지 비율이 기준치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신규 검사인력 4명이 증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대상 기관 수가 2017년 1,939개에서 2018년 1,989개로 50개(2.6%) 증가하였는데, 현장검사 실시기관 수는 2017년 235개에서 2018년 272개로 37개(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이 현장검사 기관을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검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인정된다.

## 라. 추세분석

-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은 2015년 8.98%, 2016년 10.85%, 2017년 12.12%로 나타났으며, 2018년 13.68%를 달성하여 지속해서 상향 추세를 보였다. 1인당 검사일 수 비율은 2015년 48.90%, 2016년 49.05%, 2017년 49.19%로 나타났으며, 2018년 51.41%를 달성하여 지속해서 상향 추세를 보였다.
- 2018년 현장검사를 받은 기관이 272개(13.68%)이고 현장검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1,717개(86.32%)이다.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소수의 기관만 현장검사를 받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정책자금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기관을 현장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사활동일수에서 현장검사 일수와 담당자 교육출장일수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연도별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농업재해보험 관리

### (1)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수준 개선 노력도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①보험가입금액 실적 × 50%) + ②상품·제도개선 건수 × 50%)	목표부여 (편차)	136,253억	178,212억	50.00	3.50	7.00
		28.68건	30건	50.00	3.50	

#### 나. 평가내용

- 농업정책보험(농작물·가축·농기계·농업인)의 사업실적인 보험가입금액의 증가수준과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건수 측정을 통해 농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보장수준 확대 및 사업 규모 확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가입금액 실적 목표치 136,253억 대비 실적치 178,212억으로 목표치 131%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50점 만점 중 3.50점을 획득하였다. 상품 제도개선 건수 실적 목표치 28.68건 대비 실적치 30건으로 목표치 10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50점 만점 중 3.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보험가입금액이 2017년 12조 4,798억 원에서 2018년 17조 8,212억 원으로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42.8%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가입금액의 증가율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농작물 51.0%, 가축 16.8%, 농업인 51.4%, 농기계 21.6%로 나타나 농작물과 농업인 관련 보험의 가입실적 증가가 뚜렷하였다.

라. 추세분석

- 보험가입금액 실적은 2015년 101,384억, 2016년 126,478억, 2017년 124,799억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178,212억을 달성하여 상향 추세를 보였다. 상품·제도개선 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 21건 2017년 25건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30건을 달성하여 지난 4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기관이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된다.
- 보험가입금액 실적과 상품 제도개선 건수가 편람에 맞게 계산되고 적합하게 평가되었다. 이 두 가지 비율이 기준치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여 기관이 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관이 신규 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보장내용을 추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인정된다. 상품 제도개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기관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보험가입금액을 측정함에 있어서 상품별 예산액을 가중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며 이러한 가중방법이 경영 개선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인 관련 보험은 예산 비중이 12.7%에 불과함에도 전체 보험가입금액(단순합계) 82조 7893억 원의 66.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비의 불균형이 노력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난이도와 연관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향후 경영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과연 지금처럼 예산으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이 상품별 보험가입금액을 단순합계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품 및 제도개선 실적을 단순히 건수를 합계하는 방식보다는 개선의 실질적 효과나 중요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류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농기계 관련 분야 보험은 가입금액이 3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실적은 1건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보험사업점검 기관 수 증가율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당해연도 사업점검 기관 수 ÷ 기준연도 사업점검 기관 수	목표부여 (편차)	1.50	1.52	100.00	3.00	3.00

### 나. 평가내용

- 보험사업자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점검 실적의 기준연도 대비 증가 수준의 측정을 통해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확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사업점검 기관 수 증가율 조사결과 최고목표치 대비 1.3% 초과 달성하여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점 만점 중 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보험사업점검 기관 수와 증가율이 편람에 맞게 계산되고 적합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점검 기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관이 사업관리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추세분석

- 보험사업점검 기관 수 증가율 조사결과 2015년도 1.00%, 2016년도 1.21%, 2017년도 1.36%에서 2018년도 1.52%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2018년에 64개 기관을 점검하여 전년보다 7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기준연도(2015년)보다 22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사업점검 기관 수 증가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점검 기관 수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검내용에 따라 경영 개선이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③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 (1)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Sigma$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 $\Sigma$ 모태펀드 추가조성금액	목표부여 (편차)	142.42%	139.93%	94.19	5.00	4.71

나. 평가내용

- 지속적인 농림수산물식품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물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의 성과 측정을 위해 모태펀드 추가조성 금액 대비 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액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조사결과 최고목표치 142.42% 대비 실적치 139.93%로 목표치 94.19%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71 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출자 승수비율은 기준치 131.00%보다 8.93% pt 높은 139.93% 달성하였으며, 운용사 회수금을 활용한 재출자 등 모태펀드 출자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2018년 정부출자금액은 200억 원(농식품부 100억 원, 해수부 100억 원) 이었으나 시물레이션 작업을 통해 미출자약정자산과 출자원금 및 수익분배 예상액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520억 원을 출자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조사결과 실적치 2013년도 101.91%, 2014년도 104.65%, 2015년도 106.77%, 2016년도 122.91%, 2017년도 131.00%에서 2018년도 139.93%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모태펀드 출자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평점 94.19점을 달성하여 4.71점 득점으로 다소 전년 대비 계량실적이 하향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기관의 사전적인 노력(예를 들어 정부 협의를 통한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다소 요구된다.

## (2)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114.90	120	108.05	5.00	5.00

\*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 사업설명회 지원 업체 수 + value-up 전문가 컨설팅 업체 수 + 해외 마케팅 지원 업체 수 + 국내마케팅 지원 업체 수

### 나. 평가내용

-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하고, 기 투자가 이루어진 농식품 경영체의 가치 증진(value-up)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컨설팅, 마케팅 등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조사결과 최고목표치 114.90개 대비 실적치 120개로 목표치 108.0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일정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상품에 대한 구매상담회를 중점 지원하였으나,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사업 영역 확대 등으로 제품 출시를 앞둔 경영체까지 지원하고자 ‘상품품평회’를 신규로 추진하였다. '18년 사업설명회 지원 업체 중 3개 경영체는 농식품 투자조합에서 1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는 최고목표치인 115회보다 5회 많은 120회를 달성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라. 추세분석

-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조사결과 2014년도 58개, 2015년도 57개, 2016년도 79개, 2017년도 98개에서 2018년도 120개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벨류업 전문가 컨설팅 업체 수의 지표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업체의 수요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지표 잔존 여부 등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 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 직원회의를 통해 ①성과지표 Pool 도출, ②지표의 적정성 및 ③지표 유형 검토를 시행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고, 지표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 SMART 기법을 활용한 지표 검토를 시행하였다.
- 지표 유형 검토를 위해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선정하고 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의 노력으로 도 전적이고 합리적인 계량 목표치 설정하고자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전년도 성과분석을 통한 '18년도 비계량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내외부 모니터링체계를 통해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환류 활동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하고자 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측면에서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손해 평가사 활용률’ 지표가 계량지표로 신설되었으나 지표의 연차별 편차가 다소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등 지표 설정에 대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정책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기관 수 확대 등 감사 및 사후 관리기능 강화(사후적 조치)와 더불어, 감사 전 대출기관이 스스로 정책자금을 관리토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었다. 또한, 재해보험 수요자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등 대상 범위 확대하고 기존의 대상자별 홍보에서 사업목적별 수요자 분류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농작물 재해보험 지역별 보험 요율 격차 완화를 위한 요율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1회전 현장검사 주기 단축 및 검사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정책자금 검사·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국민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전년 대비 특수목적 펀드 종류를 다양화하고 전년 대비 신규 결성액 중 특수목적 펀드 비중을 15.6% 확대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지역대리점의 재해보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64회의 정책보험사업을 이행·점검하고 운용상 보완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고 하나, 이행점검에 그치고 사후 피드백 측면은 다소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정책자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활동 강화라는 비계량 성과지표에 대출기관 자체 관리 역량 향상을 비계량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험 제도·상품개선이라는 비계량 성과지표에 농가 현실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한 수용성 제고를 비계량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농식품 경영체 경영지원 확대라는 비계량 성과지표에 클라우드펀드의 성공적인 정착과 다양한 투자 홍보 수요 충족을 비계량 목표로 설정하였다.
- 현장검사 기관 담당자 교육 272회, 연수원 집합 교육 10회 실시 권역별 순회교육 성

공적 실시와 검사 지적 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해 검사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요율 상한제 도입에 따른 지역별 요율 격차 완화로 주계약 기준 13 천 농가에 보험료 58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선발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159건, 875 백만 원 모집('17년 70건, 802 백만 원)하였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 농식품 경영체 발굴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 모태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 강화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로 기관은 자펀드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 정비 및 교육 강화로 설정하였는데, 리스크 관리 강화가 단순히 가이드라인 개정과 2차례의 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관련 성과로 실적보고서에 자주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다소 창의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대내적으로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 부서장주관 회의, 분기 실적보고를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책자금 관리 협의회, 감사심의조정위원회 등 각종 협의회, 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전파 교육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년도 성과분석,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문제점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정책자금 규모를 고려한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검사 미시행 소규모기관이 상존(400여 개)한다는 자체평가에 따라 18년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검사방식 개선(소규모기관 동시검사)을 통해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투자지원 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이 확대 필요하다는 자체평가에 따라, 농식품 분야 및 벤처투자 분야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투자지원 사업을 내실화 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병충해 통계 부족, 손해평가 연구 미흡 등

으로 병충해 보장 상품 개발이 부족하다는 자체평가에 따라, 품목 특성 등을 반영한 병충해 보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도 긍정적이다.

- 전년도 성과분석,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문제점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본부별로 전년도 성과분석 및 문제점 영향 요인 분석 여부가 편차가 있어 전사적인 측면에서 본부별 편차를 축소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기관의 주요사업운영에 있어 일부 사회적 가치 고려는 인정되나,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계획 수립부터 환류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추진 요구라는 사업환경을 분석하고자 한 노력이 나타났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펀드의 역할 확대 요구라는 환경을 분석하고 농식품 경영체의 영세성을 고려한 피투자경영체의 기업가치 증진(Value-up)을 위한 지원강화 노력을 수행하였다.
- 사회적 가치를 고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취약점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 도출하고 업무시스템상 보유 기간(5년)을 경과한 '05년~'12년 검사 지적정보를 파기하는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특수목적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따라, 전년 대비 지역 특성화, 농식품 벤처, 6차 산업화,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 펀드 종류를 다양화하고 전년 대비 신규 결성액 중 특수목적 펀드 비중 15.6% 추가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혁신 기반 마련 필요 하고자 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혁신 기반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성화 펀드 도입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본부별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편차가 있어 전사적인 측면에서 본부별 편차를 축소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관리 적정성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 ⑤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검토하였다.
- 계량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았고 자체기구와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노력한 바가 인정된다. 지표 개선 프로세스는 1단계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지표 개선 방향 설정, 2단계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을 고려한 주요사업별 성과지표 풀 도출, 3단계 SMART 기법 및 지표 속성을 고려한 지표의 적정성 검토, 4단계 내·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성과지표 개선안 도출로 진행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지표를 사용해온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개선한 노력이 인정되며, SMART 분석으로 지표 적정성을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표 개선을 위한 3단계에서 SMART 분석을 하여 지표 유형을 투입, 과정, 산출, 결과로 분리하였는데 산출지표와 결과지표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서 동기부여와 성과관리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단계 성과지표 개선안 도출에서 지표들을 가중 평균 하는 방식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책자금 투명성 개선 노력 지표는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6점 만점)과 1인당 검사일 수 비율(4점 만점)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때 현장검사 실시기관 수

와 1인당 검사일 수는 개수와 일수로 속성이 다르므로, 두 점수를 합산해서 나온 지표 점수는 해석이 어려워 개선이 요청된다. 농업정책보험의 보장수준 개선 노력 지표도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보험가입금액과 제도개선 건수를 가중평균해서 나온 수치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지표는 여러 활동(사업설명회, 전문가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마케팅 지원)에 참여한 업체 수를 합산하여 작성하였는데, 이때 단순히 참여한 업체 수를 합산하기보다는 각각의 활동이 몇 회나 개최되었는지 집계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계량지표 주요사업별 가중치를 3개 분야에 모두 동일하게 10점으로 설정하였는데 변경 근거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중치 설정 근거를 예산이나 인력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검토하였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제시한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합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목표는 도전적 목표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목표의 도전성이 미흡한 원인은 기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편람이 제공하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이 지닌 한계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선택권이 있다면 목표부여(편차)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을 시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제시한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회 등 외부의 관리기능 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기관이 과거 4~5년간 각 지표의 실적을 꾸준히 증가시킨 노력이 또한 인정된다.



- 목표부여(편차) 방식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제시한 방법이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4~5년의 자료를 이용해서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것은 표본 개수가 너무 작아서 통계량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표준편차 대신에 평균 절대편차(Mean Absolute Deviation)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AD = \frac{\sum_{i=1}^n |x_i - \bar{x}|}{n}$$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지표구성 적정성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국제식품검역인증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b>1. 사회적 가치구현</b>					
	(1) 일자리 창출	3	B+	2.53	3	2.5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73	3	3.00
	(3) 안전 및 환경	2	B0	1.40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	3	2.32
	(5) 윤리경영	3	B0	2.10		
	<b>2. 국민소통 및 혁신</b>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C B0	1.90		
	(2) 국민평가(89.3점)				4	3.49
	(3) 경영정보 공시(별점 9.5점)				2	1.00
	<b>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b>					
	(1) 재무예산 운영·성과				5	4.14
	<b>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b>					
	(1) 보수 및 복리후생	4	C	2.40		
	(2) 총인건비 관리				5	5.00
(3) 노사관계	3	B+	2.40			
<b>경영관리 합계(35.94)</b>	<b>20</b>	<b>-</b>	<b>14.46</b>	<b>25</b>	<b>21.48</b>	
주요 사업	<b>1. 선박 아시아메미나방(AGM) 검사</b>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8	17.78
	(2) 안전사고 예방률				2	2.00
	<b>2. AGM 예찰 방제</b>					
	(1) AGM 예찰활동률				5	5.00
	<b>3. 재식용식품검역장소 관리</b>					
	(1) 수입재식용식품 검역장소 관리 성과				5	5.00
	<b>3.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b>	18	A0	16.20		
	<b>4.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b>	7	A0	6.30		
<b>주요사업 합계(52.28)</b>	<b>25</b>	<b>-</b>	<b>22.5</b>	<b>30</b>	<b>29.78</b>	
<b>총계</b>			<b>88.22</b>			

## 1

## 경영관리

## ①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2.53

## 나. 평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17.10.25)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8년도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없으나 총점 환산제에 따라 비계량 점수를 계량지표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평점 84.3점으로 득점 2.5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 비정규직 인력은 선박 AGM 검사 보조원 28명 등 총 40명 수준이나, 주로 계절적 업무 특성을 인한 단기간 계약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내·외부위원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 결과, 비정규직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018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환산제를 적용하였다.

##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없으나 총점 환산제에 따라 비계량 점수를 계량지표에 동

일하게 반영하여, 2018년도 평점 84.3점으로 득점 2.53점을 획득하였다.

- 매년 업무량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6월~10월)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나, 기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력 채용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노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의 제공 측면에서 관련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부분에 1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세부 활동별 등급 : 일하는 방식 개선: A+, 그 외 3개 세부항목: B+~B0).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등 체계적 활동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었으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중점 추진 전략 및 활동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의 주요사업의 특성 분석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의 기여 가능성 판단도 환경 변화 등의 요소를 고려한 기관업무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 질 개선과 근로여건 개선의 구분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가치 및 추진 전략, 주요 활동, 연도별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분석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등 체계적 접근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계획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정비를 한 노력과 다양한 형태의 청년 일자리 및 체험 기회 제공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타당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각 활동의 신규, 강화 등 구분을 하기 위한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과 구분된 성과제시체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활동의 지표 적합성 제고). 평가편람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대한 수용 가능성 분석 및 장애 요인 식별과 극복방안 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요사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노력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민간부문 포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6 ~ 1.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6 ~ 1.5),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0.6 ~ 1.0), 총합계 3점).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은 정원 50인 이상 기관에 해당하므로 지침 위배사항이 없어 지표 가중치 0.9점 만점에 0.9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기고용 국가유공자가 고용인원의 6%이므로 지표 가중치 1.5점 만점에 1.5점을 획득하였다.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의 적용 대상은 일반 용역 중 단순 용역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가 없으므로 지침 위배사항이 없어,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법정 기준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는 없으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 등 사회통합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기관의 특성상 용역근로자는 없으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3명은 기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용인원의 6% 수준). 국가유공자 채용실적에 1.5점, 그 외 2개의 항목에 1.5점의 배점을 두고 평가하며,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만점 처리하였다(비적용 항목에 대한 자체처리 기준).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의무가 없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국가유공자 3명 기고용되고 있으며,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실적은 용역 대상자가 없어 지침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속해서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법정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율적 노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의 강조 측면에서는 청년채용 부분에 1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청년 등의 채용 노력: A+, 그 외 3개 세부항목: B+-B0).
- 비교적 체계적인 접근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과 연계된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차별적 요인 배제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등이 정부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세부 활동별 목표의 타당성, 구체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체계적 접근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채용형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여성 중간관리자 양성 기반 강화 및 승진 확대에 대한 노력과 무기계약직 직급 명칭 개선 노력 등 처우 개선 노력 또한 인정된다. 각 활동의 신규, 강화 등 구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각 노력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필요요소, 장애 요인, 극복방안을 기관의 여건분석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성과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사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편람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발전목표의 설정 또는 각 활동의 기대효과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분석 및 조직의 강·약점 분석이 동반된 활동관리체계로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 접근 노력과 주요사업 관련 안전사고 유형 분류 및 대응절차 수립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며 체계 정비를 노력하였다는 점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내부 보안관리 수준의 객관적 진단과 개선사항을 발굴하려 노력하였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주요사업 연계 안전사고 유형이 세분되어야 할 것이며, 유형별 안전관리 수준 분석 및 예방 및 대응절차 구체화 노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안전관리체계 추진 활동의 효과판단 기준을 정립하여 사무소별 특성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정보유형별 정보관리 적정수준 판단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 자율선택지표 총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77.33	77.33	3.00	2.32

#####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필수선택지표(4개): 중소기업생산품(0.3~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0.2~0.4), 여성 기업생산품(0.2~0.4), 장애인생산품(0.3~0.6),  
기관 자율선택지표(4개): 기술개발생산품(0.2~0.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0.6), 국가 유공자활용 사촌 생산품(0.2~0.4), 재정 조기 집행(0.3~0.5)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대비 2.01%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27점을 획득하였다.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대비 0.83%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대비 0.26%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15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4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결과를 준용하였다.

####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86.04% 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총액의 2.01% 달성,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 구매총액의 6.95% 달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0.83% 달성, 기술개발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중소기업 물품 총 구매액의 15.96% 달성, 온누리상품권 실적은 경상경비의 0.26%를 달성하였다.
-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제시가 필요하며, 미준수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제시 체계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중점을 두는 사항에 대한 자채판단 결과 제시가 바람직하다(자율선택지표 2개 선정의 근거로도 활용 가능).

###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 윤리경영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활동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세부관리지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노력은 체계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 관련 비리/

부패 유형별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성과보고서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 감사 전담조직 신설 등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노력이 인정되며, 교육 이수 실적과 성과평가 연계를 통한 자율준수 역량 강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경영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노력과 각 활동의 신규, 강화 등을 구분한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유형별 비윤리 행위 또는 실적 발생 건수 등 각 활동의 시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성과제시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며, 성과보고서에 평가지표와 관련된 제반 노력의 체계적 제시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의 제 요소에 대해 현 기관의 수준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노력의 기대효과를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분석적 능력 향상).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 ② 국민소통 및 혁신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2018년 신규 추가된 평가지표로,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인증원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기반 마련’이라는 혁신목표 아래 7개 전략과제 및 10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혁신과제 수립과 관련하여 TF를 구성하였으며, Brainstorming을 통해 혁신과제를 수립하였다. 수립된 혁신추진계획은 연찬회 및 혁신 TF 회의 등을 통해 공유되었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였으며, 혁신과제를 통해 의도했던 목적들을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혁신과제들을 살펴보면, 아이디어성 과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기관의 미래상을 구체화시키고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기획해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 역시 현재는 과제별로 추진내용, 기대효과 등이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Action Plan 단위에서 세부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혁신 추진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어느 수준에서 점검이 이루어졌고 미흡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계획이 이루어졌는지는 평가 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중점 추진과제로 외향전담팀 운영을 통한 검사 안전성 확보, 누리집 표준화 및 반응형 웹 구축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기관 사업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나름의 성과를 발생시켰다.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2018년 무사고를 기록하였으며, 5년 연속 무사고를 기록하는 등 검사의 안전성을 지속해서 유지하였다. 다만 현재 안전사고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안전사고 분류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사고 기준에 미달하는 사고들(아차 사고 등)도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하여 대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안전사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대국민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2018년에 7건에 대한 평균 응답 소요기간이 7.29일이며, 법정기한 미준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과거 실적과 비교해보면, '16년 4건에 대해 평균 응답 소요기간 7.25일, 법정기한 미준수 1건이며, '17년에는 9건에 대해 평균 응답 소요기간 5일, 법정기한 미준수 0건이다. 16년, 17년 대비 평균 응답 소요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공개 건 중 1건이 정보 기한연장에 따라 19일이 소요되면서 평균 응답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하게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 TF를 구성하여 혁신과제를 수립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통해 의도했던 목적들을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대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발생하였다.
- 그러나 혁신추진계획을 PDCA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요소들을 개선하는 것과,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문제해결 중심의 개선과제와는 별도로, 기관에서 추구하는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미래상을 구체화한다면 좋을 것이다.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 및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보다는 상황변화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사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리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C”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C”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 (2) 국민평가(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7.20	87.20	4.00	3.49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나 주무 부처 주관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00점 만점).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7.2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3.49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 고객만족도 점수는 87.2점으로 A등급을 획득하였다. 여전히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만족도 점수가 ‘15년 91.40점, ’ 16년 90.50점, ‘17년 89.90점으로 매년

소폭 하락하고 있는바, 만족도 하락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 과거 시행되었던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나름의 분석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사무소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의미 있는 환류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획재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기관 및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을 설계하고 조사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고객 니즈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추세분석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종합점수는 2015년 91.40점, 2016년 90.50점, 2017년 89.90점에서 2017년도 2.70점 하락한 87.20점을 달성하였다.
- 만족도 점수가 매년 소폭 하락하고 있는바, 만족도 하락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고객 만족과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시행하여 고객의 만족 요인 및 불만족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 전에 기대했던 부분과 이용 후에 체감한 부분을 구분하여 어떤 부분에서 gap이 많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면 고객만족도 개선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해 동일한 문항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에게 조사를 시행한다면, ① 검역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이 느끼기엔 그렇지 않은 영역, ② 검역원과 고객 모두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 ③ 검역원은 잘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객은 만족하고 있는 영역, ④ 검역원과 고객 모두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 등이 분석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된다면 더욱 고객지향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경영정보 공시(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30	50.00	2.00	1.00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18년도 경영정보 고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가중치 1.0 기준 배점 X2). 2018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30점(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기관주의’)으로 평점 50.0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18년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총 30점이다. 미공시 23점, 허위공시 6.5점, 공시변경 0.5점이며, 지연공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복 기금 주요 내용 누락(위반수준 중), 휴가/휴직 운영기준 누락(위반수준 경), 징계제도 운영현황 누락(위반수준 경), 징계처분 누락(위반수준 경), AGM 선박검사 보조원 채용정보 내용 누락(위반수준 중), 공채 우대내용 누락(위반수준 중), 연구보조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 및 우대내용 누락(위반수준 중), 2018 정규직 신규채용 수치 오류(위반수준 경), 1인당 복리후생비 수치 오류(위반수준 중) 등으로 인해 별점 조치 받았다. 대부분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착오로 발생한 부분이 많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상반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하반기에 바로 조치 된 부분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라. 추세분석

-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종합 별점은 2017년도 11점에서 2018년도 30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경영정보공시 위반사항 및 사유를 살펴보면,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착오, 변경된 매뉴얼에 대한 미숙지,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발생했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유 및 내용을 잘 정리하여 공유·전파·인수인계함으로써,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지적받은 사항과 동일·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1)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	78.50%	82.80	5.00	4.14

#####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78.5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14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예산집행률은 78.5%로 과거 대비 향상되었다('16년 72.3%, '17년 60%). 2018년 편성된 사업비 예산 112억 1,900만 원 중 8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다. '15년 66.6%, '16년 72.3%, '17년 60%에 비해 예산집행률이 향상되었다.

##### 라. 추세분석

-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2015년도 66.60%, 2016년도 72.30%, 2017년도 60.00%에서 2018년도 78.50%로 전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보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현재 일부 항목에 있어서 과편성 및 이월금 발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기관 예산운영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다만 지금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것인지 선제적 고민 및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예산운영방식이 변경된다면 편성 및 집행관리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해 과거 실 집행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성 및 집행 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정부의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선 의지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수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직급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른 직무 수당을 시범 운영하였다.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운영 효율성 및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체계 개선 외에 단계적/점진적 보수체계 개선계획의 보완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요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수요자 중심의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복리후생 만족도 조사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17년 직원몰입도 조사(복리후생 관련 문항 3개) 내 포함되었던 복리후생 관련 만족도 조사를 보다 체계적인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복리후생제도 만족도 조사(2018년 12월 실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의견수렴 - 결과 분석 - 환류 등의 활동을 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으려면 조사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2024년에 최초로 발생하며 정부 권고안에 따라 신규채용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25~’ 27년에 임금피크제 대상자 1명이 발생 예정이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1명의 신규채용을 하는 계획으로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평가체계 외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수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업무

및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복리후생과 관련한 직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등은 충분한 환류 기간을 고려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년도 임금피크제 도입 시 ‘권고안’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까지 적용대상자가 없으나, 해당 시점 도달 시 재검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 관리(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60% 이하	0.94%	100.00	5.00	5.00

###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18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94%로 기준치 2.6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94%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6%(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 기관의 경우 3.6%)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및 2017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라. 추세분석

- 2015년도 4.59%, 2016년도 2.71%, 2017년도 4.39%에서 2018년도 0.94%로 정부 가이

드라인 기준인 3.60%(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 기관의 경우)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 간 협의 체계는 법령 기준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기별로 1회, 총 4회의 정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니즈 및 이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국 8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사무소장 회의를 통해 사무소별 니즈 파악 및 환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장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장의 전국 사무소 방문(8개소, 연 2회)을 통한 현장직원과의 소통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계층·역량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수료( '16년 1명, ' 17년 2명, '18년 2명)를 통한 협상 능력 향상에 대한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노사협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 준수, 가족 친화제도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가족 친화제도 확대의 연차휴가저축제도는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거나 실효성 있는 운영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연차를 저축했다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저축을 통해 쌓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지 향후 활용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로 머물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전문과 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력 및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월~12월까지 주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퇴근 후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는 등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장의 전국 사무소 방문을 통한 소통 채널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직원의 세부적인 니즈를 청취하여 각 사무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족 친화제도 확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부 기준 및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 제도로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개선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국내 AGM 검출실적 - 상대국 AGM 검출실적)/ 국내 AGM 검출실적 X100	목표 대비 실적	100	98.49	98.79	18	17.78

나. 평가내용

- 인증원이 발행하는 AGM 무감염 증명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상대국에서 신속 통관을 위하여 상대국 AGM 검출 예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조사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98.49%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8점 만점 중 17.78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선박검사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으며, AGM 제거방법, 선박 내 주요 검사장소 등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감염 증명서 원본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으며 관련한 자료보관 등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항만에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발생예측을 통하여 조기 신속대응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조사, 인증, 현장 조사 인력 등의 전문성이 높고 조사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AGM 난괴 검출률이 증가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로 인정된다.

라. 추세분석

-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조사결과 2015년도 96.15%, 2016년도 100.00%, 2017년도 98.15%에서 2018년도 98.49%로 전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전용 방제약제의 사용비율을 높여 방제효율을 높이는 노력(32% → 43%)은 단기간 방제 효과는 있겠으나 살충제의 독성이 높아 환경오염문제, 안전문제 등에 노출될 위험도 상승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전략적인 예찰 방법 강화, 유입경로 차단, AGM 발생 이전 초기 신속대응 방법 등을 강구하여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이 발행한 AGM 무감염 증명서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 또는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AGM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동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선박으로 유인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등 과학적인 접근으로 AGM 발생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실적보고서상 선박의 척수와 검사 건수를 동일하게 기술하여 혼돈될 수 있으므로 실적 산출 시 단위를 선박 척수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찰 트랩을 증가시켜 조기 방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입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연구팀과의 협력 연구 등이 필요해 보인다.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AGM의 개체 수 증가에 대한 검사강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 조사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또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로 유관기관과의 실질적인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협력 방안과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안전사고 예방률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안전사고 발생 건수 / 선박 검사 건수	목표 대 실적	100%	100%	100.00	2.00	2.00

### 나. 평가내용

- 선박 AGM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안전사고 예방률 조사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 AGM 검사를 시행한 3,075척의 선박 중 검사원의 안전사고는 0건 발생으로 나타나, 5년 연속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박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고 검사기록부에 안전교육 시행 여부를 기재하고 있다. 안전장비를 확충 및 현대화하였고, 선박 운항 스케줄에 맞추어 공휴일, 조조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 안전사고 예방률 조사결과 2015년도 100%, 2016년도 100%, 2017년도 100%, 2018년도 100%로 매년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선박검사 업무 특성상 검사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현장여건, 개인별 검사량 분산 등의 관리를 지속해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2 AGM 예찰 방제

(1) AGM 예찰 활동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AGM 예찰 활동률*	목표 대	100%	101.48%	100	2.50	5.00
	실적	100%	101.48%	100	2.50	

\* (평가연도 AGM 트랩설치 수/목표 트랩설치 수X0.5)+(평가연도 AGM 트랩조사 수/목표 트랩조사 수X0.5)

나. 평가내용

- AGM 고위험기간 중 항만 및 항만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밀도에 따라 방제 및 선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트랩설치 조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목표대비 AGM 트랩설치 수 조사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01.48%를 달성하였

고, 지표 가중치 2.50점 만점 중 2.50점을 획득하였다.

- 목표대비 AGM 트랩 조사 수 조사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01.48%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50점 만점 중 2.5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매년 AGM 예찰 활동을 조사하여 경유 선박들의 잠재 오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매년 페로몬 트랩을 추가로 설치하여 항구 주변 AGM의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 및 2019년에도 추가로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여 활동을 확인하려 한 부분은 활동률 확인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도 동계기간 중 난괴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월동 개체 수를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도 우수한 활동으로 판단된다.

#### 라. 추세분석

- AGM 트랩설치 실적은 2015년 100.05%, 2016년 103.88%, 2017년 100.40%로 나타났으며, 2018년 101.48%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향하였다. AGM 트랩 조사 실적은 2015년 100.05%, 2016년 104.60%, 2017년 100.40%로 나타났으며, 2018년 101.48%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향하였다.
- AGM의 경우, 특히 성충인 경우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으므로 항구 주변 AGM 예찰 활동률이나 항만 주변 2~3km 내에서 진행되는 난괴 제거 작업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추후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AGM 유충의 기주 범위가 활엽수와 침엽수 등 600종 정도의 다양한 기주를 가해하는 것과 AGM의 이동 반경을 고려하면 각 항구가 위치한 지자체와 연계하여 항구 주변 외 지역에서의 활동률이나 난괴 제거 작업이 연계되어 진행된다면 그 효과가 향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③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

#### (1) 수입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검역 장소 관리 실적 증감률) X 0.3	목표부여 (일반)	110.00	111.32	30.00	1.50	5.00
+(병·해충·수입금지품 발견 증감률) X 0.7		110.00	111.43	70.00	3.50	

##### 나. 평가내용

- AGM 고위험기간 중 항만 및 항만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시행하여 발생밀도에 따라 방제 및 선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트랩설치 조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검역 장소 관리실적 증감률 조사결과 목표치 110% 대비 실적치 111.32%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50점 만점 중 1.50점을 획득하였다. 병해충수입금지품 발견증감률 조사결과 목표치 110% 대비 실적치 111.4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50점 만점 중 3.5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재식용 식물검역 장소 관리업무는 외래 병해충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업무이다. 매년 증가하는 재식용 식물 수입에 따른 전문가들의 체계적 병해충 방제 조치는 굳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업무 중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판단된다. 수입 재식용 식물에서 병해충 검출 시 신속한 방제 조치를 하여 외래 유입 병해충의 국내 정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 업무 수요에 따라 기간제로 전문가를 활용한 부분은 인건비 절약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나 업무 연계성 및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향후 기간제 인력 활용이 아닌 전문인력 고용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추세분석

- 검역 장소 관리실적은 2015년 99.01%, 2016년 97.70%, 2017년 95.85%로 나타났으며, 2018년 111.32%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였다. 병·해충·수입금지품 발견 증감률은 2015년 129.27%, 2016년 124.53%, 2017년 106.06%로 나타났으며, 2018년 111.43%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향하였다.
- 재식용 수입식물에서 외래 병해충 발견 시 바로 병해충 비산 방지 및 긴급방제 조치는 가능하나 분류, 동정, 확인 등의 과정을 검역본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연구영역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검역 관련 외래 병해충 발견 시 바로 검역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업무가 수입된 재식용 식물에서 외래 병해충들의 감염 또는 오염을 검사하는 것인데 현재는 주로 갑각류 해충과 기타 해충 및 개미 등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향후 병원체들의 오염 및 감염 등에 대한 검사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 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i) 선박 AGM 검사, ii) AGM 예찰 방제 및 iii)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업무를 제한적인 자원과 인력으로 주요사업별로 정해진 목표에 따라 사업을 구성하여 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선박 AGM 검사는 매년 요구되는 검사 선박 수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검사 선박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로 여겨지고 이로 인한 능동적인 검사 체계 확립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AGM 예찰 및 방제 사업은 주로 항만 주변 2~3km 이내 지역에 한정하여 진행되고는 있지만, 페로몬 트랩의 수를

꾸준히 증가시켜 경향을 확인하고 있고 동계기간 난괴 제거 작업을 통해 잠재적인 유충 및 성충의 수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효율적인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에 의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은 사업들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늘어나는 업무량에도 아직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양안전 전문교육 및 장비 교체 등의 노력이 돋보인다.
-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AGM 발생 빈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며 특히 발생 빈도 변이를 감안한 최적기 약제 살포 노력은 PLS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다. 또한, 재식용 식물의 수입 시 동반 유입이 가능한 외래 병해충 등의 유입 및 정착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방제 및 비산 방지조치 등을 제한적인 가용 인원 및 수입물량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AGM 검사 선박 수가 증가하였으나 상대국 검출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AGM 검사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종자 및 구근 등 수입물량의 증가 때문에 재식용 식물검역 장소 관리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AGM 검사 선박 물량이 많은 기간에는 기간제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연계성이나 전문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식물검역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검사 선박 수가 증가하고 있고 상대국 AGM 검출도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위

협 국가 경유 선박들의 이력관리 및 철저한 검사가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 선박 이력관리가 잘 되고 있다. PLS 전면 시행에 따라 안전하고 적절한 AGM 전용 약제의 선발 및 이용이 요구되는데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GM 전용 약제 선발을 의뢰하여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잘 취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 고객들의 필요나 요구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AGM 발생 현황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여 그 효과를 제고하고 약제의 남용을 줄이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재식용 수입식물에서 해충 검출 시 적절한 장비를 활용한 긴급방제 및 요구되는 행정조치 등을 바로 취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추진 효과가 저조한 유살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추진 사업에는 그 실효성이 확인되었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확인된 페로몬 트랩의 설치 활용을 권장한다.
- 재식용 수입식물 병해충 현장 검증 및 동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또는 사업추진과 검역 관련 일부 권한 위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제시한 목표치들을 대비하여 거의 모든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증명서 미소지 선박에 대한 통보 등의 노력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국제신뢰도 향상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다. AGM 선박검사 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효율적으로 사무소 간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검사 지체 없이 요구

되는 검사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검사물량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증가는 예상할 수 있지만,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2018년 전년도 AGM 발생 증감률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은 AGM 예찰 및 방제 비용 절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에도 각 항만 소재 지역 기관들과 합동으로 AGM 발생 예찰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는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다행히 해양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중요성을 고려하면 해양안전교육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한 직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직원이 가지고 있도록 권장한다.
- 요구되는 직원교육과 기술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상대국 AGM 검출 척수 최소 수치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AGM의 가능한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각 항만 소재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GM 방제 효과 제고를 위해 AGM 발견 시 등록 권장된 AGM 전용 약제 살포 사용비율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제한된 인원으로 늘어나는 검사 선박 수와 재식용 수입식물들의 검사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진다. 자체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들에 모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수수료 인상이나 정부 지원 확보 등에 의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요구되는 사업 및 환류 활동들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전문가를 고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선박 AGM 검사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고무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 검사 관련 요구되는 식물검역 관계관들과의 정례회의 추진 및 운영 관련 자문과 점검은 향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활용도가 떨어지는 유살 등 사업은 더 이상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기하고 기구입한 유살 등은 타 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재식용 식물 대상 병해충 검사 중 검역 관련 병해충 발견 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검역직원도 즉시 검역 처분 조치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현재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 하므로 반드시 요구되는 시행규칙의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 또는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수행하였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 방향의 강화를 대비하여 앞으로도 계획 수립부터 환류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역할은 원활한 수출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 기반 자연환경 보호와 철저한 검역 장소 관리에 의한 공공성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안전한 검사환경 조성, 예찰 방제 인력 및 장비 운용 효율화, 검역 장소 외래 병해충 관련 안전관리 운영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다. 늘어나는 검사 요구량 및 제한적인 인력과 재원에 의해 신속한 검사 등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식용 수입식물 검역 장소 관리는 해충, 개미 외에도 병원체 등의 검사가 필요한 황이지만 현 인력 및 재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주중 주간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주말에도 적시·적기 선박검사를 수행하여 상대국에 신속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효과적인 AGM 밀도감축을 위해 동계기간 난괴 제거, 페로몬 트랩을 활용한 AGM 밀도검사 및 항만 소재 유관기관들과의 방제 활동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위 종합의견에서 제시된 현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업무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물가 및 인건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2013년 이후 지속해서 검사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절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 정부 지원, 자체 사업 발굴 등의 방편에 의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 52시간 근무시간도 특별히 기간제 인력의 고용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관리 적정성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 ⑤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과 계량지표의 구성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지표의 대표성과 연계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4개의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약제사용 관련한 안전문제는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가중치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 AGM 검사 지표가 총 30점 중 20점의 가중치가 설정되어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지표인 안전사고 예방률의 경우 본 사업의 주요 목적과는 별도의 지표로 기관 핵심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기관 차원의 관리지표로 선정하여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계량지표 설정 및 계량지표별 성과의 목표치는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계량지표별 성과를 모두 100% 목표치를 달성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성과지표 중 합동 예찰 조사 참여기관 수의 목표치를 범위(21~31개)로 정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범위가 아닌 명확한 수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대 참여기관과 관련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의견을 미반영하여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AGM 전용 약제 사용비율과 약제 살포횟수가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유사한 지표로 사료되므로 지표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부 지표에 대해 가중치 조정 및 대체 지표개발을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욱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과 연계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검토하였다. 목표 수준의 도전성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향만 내 AGM 발생 모니터링 회수를 줄이고 모니터링 사업을 종료하는 등 발생 건수가 없다고 하여도 모니터링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AGM의 확산, 격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체계적인 계획과 과학적인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주요사업의 모든 계량지표를 목표 대 실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 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합한 목표설정 방식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AGM 대발생 지역에 대한 난괴 제거 등에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된다. 향만 주변의 AGM 밀도를 저감하여 선박으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조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향만 내 적재화물에 대한 AGM 모니터링에 투입된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조사 횟수가 95회에서 8회로 감소한바,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여부를 검토



하여 반영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계량지표의 적합한 목표 선정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표별로 목표치 설정 방식을 재검토하여 적합하게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지표구성 적정성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 4. 한식진흥원

❖ 한식진흥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b>1. 사회적 가치구현</b>					
	(1) 일자리 창출	3	B+	2.53	3	3.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70	3	2.25
	(3) 안전 및 환경	2	C	1.2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2.32
	(5) 윤리경영	3	C	1.80		
	<b>2. 국민소통 및 혁신</b>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D+ C B0	1.80		
	(2) 국민평가(89.3점)				4	3.36
	(3) 경영정보 공시(별점 9.5점)				2	1.33
	<b>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b>					
	(1) 재무예산 운영·성과				5	4.66
	<b>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b>					
	(1) 보수 및 복리후생	4	D0	1.60		
(2) 총인건비 관리				5	5.00	
(3) 노사관계	3	D+	1.50			
<b>경영관리 합계(34.05)</b>	<b>20</b>	<b>-</b>	<b>12.13</b>	<b>25</b>	<b>21.92</b>	
주요 사업	<b>1. 한식 콘텐츠 활용 실적</b>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10	10.00
	<b>2. 한식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실적</b>					
	(1) 한식 교육 공급 인프라 증가 실적				10	10.00
	<b>3.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b>					
	(1) 홍보 효과도(국내외 홍보 효과)				5	5.00
	<b>4. 한식문화관 운영성과</b>					
	(1)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5	5.00
<b>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b>	18	B+	14.40			
<b>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b>	7	D+	3.50			
<b>주요사업 합계(47.90)</b>	<b>25</b>	<b>-</b>	<b>17.9</b>	<b>30</b>	<b>30</b>	
<b>총계</b>			<b>81.95</b>			

## 1

## 경영관리

## 1]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 나. 평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17.10.25)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8년도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점 만점 중 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16명으로 정원 증원 노력과 함께 전환 목표 16명의 정규직 전환 목표를 달성하였다. 정규직 전환심의회를 거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격자 판단 후 정규직을 전환하였다.
- 정원 증원 노력과 함께 정규직 전환절차를 수행하여 목표치 100%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 비정규직 또는 간접고용직의 활용 필요성 분석 및 필요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적극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력 채용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2018년도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점 만점 중 3점을 획득하였다.

##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노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의 제공 측면에서 관련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부분에 1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청년 등의 채용 노력: A+, 그 외 3개 세부항목: A0~B+).
- 대내외 환경분석, SWOT 분석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접근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노력에 대해 지속가능성 판단이 기관업무 특성 및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추진 전략에서 민간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노력이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관리지표가 추진 전략과 연계하여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SWOT 분석을 통한 추진 전략 수립 등 기관의 강·약점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 노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기여분야 식별 및 창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한 정규직 전환절차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과 한식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 지원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SWOT 분석의 타당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노력의 지속가능성 판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대제 변경, 시간선택제, 탄력 정원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기관의 수용가능성 분석 및 적용 수준,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

관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일자리창출계획의 구체화 및 장애요소 식별, 장애요소 극복을 위한 기관의 필수 노력 분야 식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활동의 체계성 정립도 필요하다. 추가로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향상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75.00	75.00	3.00	2.25

####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6 ~ 1.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6 ~ 1.5),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0.6 ~ 1.0), 총합계 3점).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은 정원 50인 이상 기관에 해당하므로 지침 위배사항이 없어 지표 가중치 0.9점 만점에 0.9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1명을 채용하였고, 우선 채용 의무인원 2명 중 5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5점 만점에 0.75점을 획득하였다.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의 적용 대상은 일반 용역 중 단순 용역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가 없으므로 지침 위배사항이 없어,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는 없으며,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적용 대상도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채용실적에 가중치 1.5점을 배당하고, 잔여점수 1.5점은 만점 처리 하였다(비적용 항목에 대한 자체 적용 기준). 장애인 채용에 대한 노력과 법정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율적 노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지침 위배사항이 없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50%,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실적은 용역 대상자가 없어 지침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의 강조 측면에서는 청년채용 부분에 1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청년 등의 채용 노력: A+, 그 외 3개 세부항목: A0~B+).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세부 평가내용별 고려요소별 추진 방향의 구체화 등 체계적 접근 노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블라인드 채용, NCS 기반 채용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은 수행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한 활동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청년, 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부분).
- 블라인드 채용 등 채용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청년채용 확대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한 가산점 부여제도 운영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별도 직군에 대해 별도 보직 부여를 통한 차별요소 개선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각 노력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장애 요인의 식별 및 극복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실적 중심 성과제시체계를 탈피, 추진 배경과 전략, 전략 요소별 주요 항목, 항목별 추진상의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추진성과 등 노력 및 성과제시의 체계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평가편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시된 노력 및 성과의 지표에 대한 적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추가로 제시된 노력과 성과가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기관 자체의 여건분석과 연계하여 노력 및 활동의 충분성 제고).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이 보수제도, 복리후생 이외에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차별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기관 근로자 대상).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재난·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지표의 포괄적 의미 측면에서 노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역량의 강화 측면에서도 기관의 임무나 근무 특성을 고려한 보안사고 발생 가능 유형별 대처방안, 보안관리 임무 수행 부서 및 체계의 가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가편람의 단위활동 중심의 성과제시체계에서 지표가 의미하는 내용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된 활동 관리의 체계성 정립이 요구된다.
- 안전,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식 문화관 체험객(국민 등) 즉,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안전과 건강 여건 확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주요사업, 기관의 근무 여건을 고려한 재난·사고의



발생 가능 유형의 식별 및 유형별 최적의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안전, 재난 사고 예방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필요성 분석 및 교육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 및 환경 분야의 타당한 활동 발굴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지휘 통제할 책임 부서의 명시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 추진체계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특성, 임무를 고려하여 보안사고 발생 유형별 가능성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기관업무 특성을 고려한 정보유형별 정보보안관리 적정수준 판단에 대한 노력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제고 또한 필요하다.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보고서 제시 체계 발전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 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77.33	77.33	3.00	2.32

#####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 \* 필수선택지표(4개): 중소기업생산품(0.3~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0.2~0.4), 여성 기업생산품(0.2~0.4), 장애인생산품(0.3~0.6),  
기관 자율선택지표(4개): 기술개발생산품(0.2~0.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0.6), 국가 유공자활용 사촌 생산품(0.2~0.4), 재정 조기 집행(0.3~0.5)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 총액의 3% 중 0.07%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2점 만점에 0.004점을 획득하였다.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중 0.08%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중 0.02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중 4.86%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194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재정 조기 집행비 조사결과, 기준치 상반기 집행비율 30.17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4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기관 자율 선택지표 4개 중 3개를 포함하고 있어, 타 기관(자율 선택 2개) 대비 협력·상생의 범위 측면에서 발전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준수 항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제시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중점을 두는 사항을 자체판단한 결과의 제시가 바람직하다 (자율선택지표 3개 선정의 근거로도 활용 가능).

#### 라. 추세분석

- 2018년도 추가된 신규평가 지표로,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80.71% 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0.07% 달성,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 구매총액의 20.25% 달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0.08% 달성, 기술개발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중소기업 물품 총 구매액의 4.86% 달성, 온누리상품권 실적은 경상경비의 4.56%를 달성하였다. 재정 조기 집행은 전년 대비 상반기 집행비율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4.56%로 나타났다.

###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 윤리경영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부분적인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력과 연계한 성과의 제시가 활동 여부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노력의 결과로 어떤 사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평가편람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와 함께 노력의 결과로 달라진 또는 현재와 차이가 나는 기대효과가 명확한 근거하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윤리경영 비전 및 전략 목표, 중점과제의 선정 등 윤리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진흥원 혁신 종합계획에 윤리경영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반영한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평가 세부 내용의 구체적 사항별 대응 및 관련 노력 사항의 필요성과 충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평가편람 세부지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력 및 실적 제시 노력이 필요하며, 각 활동의 시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성과제시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윤리경영의 제 요소에 대한 현 기관의 수준을 분석하여 제도 및 체계개선 대안 선정의 타당성, 노력과 연계된 기대효과 제시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 ② 국민소통 및 혁신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2018년 신규 추가된 평가지표로,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한식의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한식 전문 공공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그 중 ‘사회적 가치기반 경영혁신’ 전략하에 4대 혁신 목표(감사제도 혁신, 제규정 혁신, 조직문화 혁신, 조직역량 혁신) 및 9개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 각 혁신실행과제에 대해서 구성원 공유, 점검이 잘 이루어졌고, 가시적인 성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제 기획 자체가 내부 제도 혁신 부분에 치우쳐 있어 완결성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분에 대해 과제를 설정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한식진흥원의 미래상을 기반으로 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체 과제들을 리스트업하고, 시급성 및 중요성, 수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감사제도 혁신과 관련하여 외부 감사 전문가 선임, 실무감사인 추가 배치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제규정 혁신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 재정비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조직문화 혁신과 관련 노사협의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사 규정 개정 및 성과평가에 관한 지침도 제정하였다.
- 조직역량 혁신과 관련하여 조사연구팀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시행한 점이 인정되며, 대국민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2018년에 23건의 정보 공개 청구 중 11건에 대해 공개가 결정되었으며, 평균 응답 소요기간은 9일, 법정 처리기한이 초과 된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 기간이 초과한 건이 없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거나 평균 응답 소요기간에서는 일부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 수립된 혁신실행과제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분과회의를 통해 구성원에 공

유를 하고 6차례 혁신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각 실행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발생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혁신추진계획을 PDCA 관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식진흥원의 경우, 현재 구성원 공유 및 점검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계획 수립에 있어 체계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요소들을 개선하는 것과,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 현재의 문제해결 중심의 개선과제와는 별도로, 기관에서 추구하는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하여 한식진흥원의 미래상을 구체화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 및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보다는 상황변화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D+”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C”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 (2) 국민평가(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4.10	84.10	4.00	3.36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나 주무 부처 주관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00점 만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4.1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3.36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 고객만족도 점수는 84.10점으로 '16년 81.00점, '17년 83.30점 등 매년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한식 콘텐츠 보급확산이 72.9점으로 전년 대비 9.8점이 하락하였으며, 한식 전문인력양성 국내 교육이 80.6점으로 전년 대비 5.3점 감소하였다. 한식 포털사이트 활용이 82점으로 전년 대비 12.3점이 상승하였으며, 해외 한식당 컨설팅 역시 89.8점으로 전년 대비 5.1점이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 장 문화 국내 기반 조성이 78.9점, 한식 인력 취·창업 지원이 82.7점, 한식문화관 운영이 91.1점, 한식 관련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가 63.2점, 해외 한식당 협의체가 91.1점으로 나타났다.

#### 라. 추세분석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5년도 89.20점, 2016년도 81.00점, 2017년도 83.30점에서 2018년도 84.10점으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기관 차원에서 나름의 고객만족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되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식문화관 운영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별도로 자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가 시행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17, '18년 한식문화관 운영사업에서 90점 이상의 고객만족도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향후 다른 사업에서도 사업별 특성에 맞춰 설문 설계를 시행하고 자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면, 더욱 심층적인 고객 니즈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객만족도 개선계획이 현재 수준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선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고객 요구에 대한 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고객만족과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시행하여 고객의 만족 요인 및 불만족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 전에 기대했던 부분과 이용 후에 체감한 부분을 구분하여 어떤 부분에서 gap이 많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면 고객만족도 개선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해 동일한 문항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에게 조사를 시행한다면, ① 진흥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이 느끼기엔 그렇지 않은 영역, ② 진흥원과 고객 모두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 ③ 진흥원은 잘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객은 만족하고 있는 영역, ④ 진흥원과 고객 모두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 등이 분석

될 것이다. 이처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된다면 더욱 고객지향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경영정보 공시(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11	66.70	2.00	1.33

####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18년도 경영정보 고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가중치 1.0 기준 배점 X2). 2018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11점으로 평점 66.7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3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한식진흥원 2018년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총 11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미공시 4.5점, 허위공시 4.5점, 수정공시 2점으로 나타났다. 경영공시와 관련해 ‘15년 38점, ’ 16년 22점, ‘17년 11점의 별점을 받았으며, 2018년은 ’ 17년과 동일 수준의 별점을 받았다.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휴가 관련 기준 누락(위반수준 경), 본인 결혼 시 휴가 일수 허위 공시(위반수준 경), 징계 현황 일부 내용 누락(위반수준 경), 감사보고서 감사인 의견 누락(위반수준 경), 소속 외 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 수정, 고문변호사 명단 수정, 재해구호 휴가 기준 수정, 수의계약 첨부파일 수정 등으로 인해 별점 조치를 받았으며, 대부분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공시 관련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하였으며, 경영공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라. 추세분석

-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별점은 2017년도 11점에서 2018년도 11점으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진흥원에서 수립한 매뉴얼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그간 발생했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유 및 내용을 잘 정리하여 공유·전파·인수인계함으로써,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지적받은 사항과 동일·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1)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	91.457	93.152	5.00	4.66

##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1.457%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66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예산집행률은 91.457%로 과거 대비 하향되었다('16년 92.506%, '17년 95.488%). 2018년 편성된 사업비 예산 67억 700만 원 중 6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300만 원을 반납하였다.
-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9월 말 시점을 확인하였다. 9월 말 시점의 집행률이 53.66%로 다소 낮은 편인데 진흥원 사업의 특성상 계약 잔금들이 11, 12월에 집중되면서 3분기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2015년도 64.466%, 2016년도 92.506%, 2017년도 95.488%에서 2018년도 91.457%로 과거 대비 하향되었다.
-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사업 담당자가 주무 부처와 논의해서 확정하고 기획실의 실제적인 역할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흥원 차원에서의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기관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월 2회 담당자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월 1회 사무총장 보고, 분기별로 주무 부처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단순 실무자 차원의 형식적 모니터링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집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예산편성단계에서는 기관운영 방향과 연계되면서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편성단계에서 기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분석 및 편성 예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연내 발생이 예상되는 계약 잔액 및 집행 잔액에 대해 사용계획을 보다 체계화하면 좋을 것이다. 집행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전파하여 환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용, 조정 등을 통해 단순히 집행률 자체를 올리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편성부터 집행, 환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여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성 및 집행 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간 합리적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성과평가를 강화한 것은 작은 조직인 만큼 성과연봉제의 폐단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여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18년 정원이 증가하면서 노사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합리적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직급수당 폐지 및 재수당 간소화를 통한 직무급제 신설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확대할 필요가 있다.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내부만족도를 경영기획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보수체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보수체계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내부만족도 조사 시행 및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영 중장기 신규채용 계획 및 채용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0” 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 관리(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60% 이하	2.387%	100	5.00	5.00

###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18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387%로 기준치 2.6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8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39%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6%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및 2017년도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라. 추세분석

- 2015년도 4.61%, 2016년도 2.927%, 2017년도 2.746%, 2018년도 2.387%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15년 4.80%, '16년 3.00%, '17년 3.50%, '18년 2.6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 간 협의 체계는 2018년 5월 노사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법령 기준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분기, 4분기 총 2회 운영). 향후 보수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노사협의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노사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타 기관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정보획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통의 최종 목표인 Feedback이 강화되어야 형식적 소통 채널 운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고충 접수 설문(연 1회), ②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상시), ③ 경영 혁신방안 설명회(1회), ④ 노사협의회 운영(2회) 등이 공식 채널로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노사협의를 통해 ① 보상휴가제 도입, ② 조기 퇴근제 운영방식 변경, ③ 사내 동호회 운영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형식적인 제도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사내 동호회의 경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식 채널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횟수 또한 늘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적보고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

### 1 한식 콘텐츠 활용 실적

####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당해연도 제공 건수	목표부여 (상향, 20%)	최고: 2,988,890건 최저: 1,948,540건	3,306,981건	100.00	10.00	10.00

\* 평점=20+80x(실적치-최저)/(최고-최저). 100점을 넘을 경우 100점이 만점.

##### 나. 평가내용

- 진흥원이 개발·보유한 콘텐츠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제공된 증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 콘텐츠 활용도 목표치 2,988,890건 대비 실적치 3,306,981건으로 목표치 110.64%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0.00점 만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한식 포털사이트로의 통합 및 콘텐츠 제공 카테고리의 재분류 등 수요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식아카이브 사이트 페이지뷰 수가 전년대비 182.345%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 유관기관에 산재한 콘텐츠를 수집·통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협조시스템을 통한 방문자 페이지뷰도 계속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으며, 본 지표의 가장 많은 비중(86.77%)을 차지하고 있다.

##### 라. 추세분석

- 한식아카이브 사이트 페이지뷰, 협조시스템을 통한 방문자 페이지뷰, 민원접수를 통해 제공된 합산된 콘텐츠 수는 2016년 1,623,783건에서, 2017년 2,490,742건, 2018년

3,306,981건으로 지속해서 30% 이상의 성과 향상을 보였다.

- 본 지표는 한식 콘텐츠 활용도와 한식 저변 확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데 당해연도 제공된 건수라는 단순 측정치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며, 한식아카이브 콘텐츠 검색을 위한 접근성 개선 등 시스템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또한, 협조시스템을 통한 방문자 페이지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바 이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제공 자료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② 한식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실적

### (1) 한식 교육 공급 인프라 증가 실적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교·강사 교육 인원 X 교육지역/예산액) X100	목표부여 (일반)	84.585	92.440	100.00	10.00	10.00

####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전문교육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교육지원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강사 교육 인원과 교육지역의 가중합산을 사업예산으로 나눈 평가산식을 사용하고 있다. 2018년 실적치는 263.465로 이는 전년(2017) 대비 45.019 증가한 실적으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262.135를 초과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 가중치 1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교육실적인 교·강사 교육 인원은 223명으로 전년도 182명 대비 22.52% 증가하였으나, 교육지역은 38곳에서 29곳으로 9 지역 감소하였다.
- 교육지역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치가 20.609% 증가한 이유는

예산 7백만 원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추세분석

- 한식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실적은 2017년 218,446에서 2018년 263,465로 증가하여 20.6%의 성과 향상을 보였다.
- 본 지표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 교·강사 직군 인프라 pool을 구축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지역 확대가 중요함에도 예산감소로 인한 교육지역 감소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예산 증감이 본 사업취지에 얼마나 주요한 요소인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 교육의 질적 수준과 교육 효과인 교육수혜자의 역량향상에 대한 평가, 교육이수자의 활동 사항 등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

(1) 홍보 효과도(국내외 홍보 효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언론 노출 건수/예산액 X100	목표 대 실적	84.585	92.440	10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한식문화 및 진흥원의 사업 홍보 관련 언론 노출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문화 언론 노출도 증가율 목표치 84.585 대비 실적치 92.440으로 목표치 109.29%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조직적·예산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실적(예산대비 언론 노출 건수)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다양한 계층 및 대상을 홍보 타겟으로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홍보 매체·채널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인력,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여 홍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등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서포터즈 활용 등 일반인들의 참여를 통한 소비자 밀착형 사업추진, 기관의 사업과 연계한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홍보의 효과 제고와 지속이 가능한 홍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라. 추세분석

- 한식문화 언론 노출도 증가율은 2015년도 27.438, 2016년도 46.335, 2017년도 70.487에서 2018년도 92.440으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이전 연도에 대비하여 예산, 인력 등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국내외 고객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계층/범위를 대상으로 한식 및 한식문화와 진흥원 사업의 내용·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홍보 실적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밖에 최근의 미디어 환경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를 반영하여 뉴미디어 홍보 시행,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참여형 홍보를 시행하며, 효과적 홍보 추진을 위해 추진 사업과 연계한 홍보를 추진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으로 평가된다.
-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관의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가 보도,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수, 한식 포털 언론 보도 재확산 수 등 양적 확대(개선)를 반영한 다소 단순하고 평면적인 지표로만 집계되고 있다는 점은 점검·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서 사업을 개선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 홍보 성과가 양적 요소(예산대비 언론 노출 건수 등) 등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상별·매체별·내용별 등 홍보 타겟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홍보 효과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조직 등의 한계로 인해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사업들에 대한 질적 관점에서의 분석 시행과 이러한 분석을 반영한 홍보 전략의 수립·추진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한식 및 한식문화에 대한 인식·이해도 제고가 본 기관의 핵심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보다 장기적·체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에서 국내외 홍보 사업 추진 시 양적 효과뿐만 아니라 질적 효과·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한 홍보 전략 수립·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한식문화관 운영성과

##### (1)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정도*	목표부여 (일반)	143,000	153,619	20.00	1.00	5.00
		3,960	6,215	80.00	4.00	

\*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정도 = (방문객 실적/방문객 목표)X0.2+(체험객 실적/체험객 목표)X0.8

나. 평가내용

- 한식문화관 방문객, 체험객 증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문화관 방문객 실적 목표치 143,000명 대비 실적치 153,619명으로 목표치 107.4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00점 만점 중 1.00점을 획득하였다.
- 한식문화관 체험객 실적 목표치 3,960명 대비 실적치 6,215명으로 목표치 156.94%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본 사업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새로이 시작된 사업으로써, 이전에 해외(현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던 기관의 사업(한식 세계화 사

업) 추진 전략에서 전환하여, 국내(내국인, 인바운드 외국인)에서의 한식 및 한식문화에 대한 인식·이해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실적이 지속해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순한 전시·홍보가 아니라 전시·관람과 함께 체험, 교육 등을 병행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객과 체험객 등 고객을 다층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기관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당 사업의 효과·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특히 해외 거주 외국인이 아니라 인바운드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기존의 평면적인 관광 코스(프로그램) 이외에 더욱 심층적인 한식 및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의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와 홍보 효과를 보다 배가시킬 수 있는 접근이다.
- 정규프로그램과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 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객과 체험객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험객의 경우 외국인과 함께 내국인도 포함(2018년 기준 7:3)하고, 참여국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메일링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등을 점검·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라. 추세분석

- 한식문화관 방문객 실적은 2017년 149,042명에서 2018년 153,619명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였다. 한식문화관 체험객 실적은 2017년 5,273명에서 2018년 6,215명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였다.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 현재 본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시설, 인력 등의 물적·인적 여건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인지는 더욱 면밀한 검토·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사업의 장기적 비전 수립과 이에 따른 물적·인적 제반 여건들의 지원 계획도 함께 마련됨으로써 본 사업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일련의 정규화된 절차/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기관의 사업 수립·추진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영환경 분석, SWOT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전략 및 연도별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당해 연도 세부실행계획을 세우는 등 추진 계획 수립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사업별 재무, 예산계획, 자원 배분계획도 중장기 방향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기관의 사업 추진 계획 수립·추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러나 체계적인 과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계량/비계량지표가 성과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경우에도 연도별 성과목표를 상향하는 것 이외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충분히 투영하고 있지는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및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및 자원 배분계획 등 사업별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 수립·추진이 체계적·분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추진 전략에 따른 성과목표 도출과 성과지표 및 핵심지표 선정이 대외 환경과 역량은 물론 정부 정책 등과 함께 지표의 특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면서 적정하게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전반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체계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 그러나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수립·선정된 목표, 지표, 계획 등의 적정성

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 특히 중장기계획을 통해 제시된 성과목표들이 양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됨으로써 중장기 사업추진을 통해 기관의 비전, 미션,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비계량 지표는 다소 모호한 편으로 이러한 지표의 성과를 어떠한 방식과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시된 구체적·세부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이 기관의 한정된 조직·인력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구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니터링, 점검·평가 등을 통한 사업환경 변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조직, 인력 및 예산 등을 전체 사업의 체계적 운용을 위해 적정하게 배치·활용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반면, 현재 기관의 조직, 인력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사업계획(실행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 적정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사업 전체가 기관 설립목적과 한식 및 한식문화와 관련된 정책 기조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
- 실행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 추진내용별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로 목표 달성을 가능케 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

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환경 변화 및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 주어진 여건 하에서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성과목표에 따른 추진성과 중에서 상당 비중이 양적 측면에서의 실적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적 달성(개선) 이외에 추진 사업·프로그램 등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사업(계획) 수립·추진과 실적 달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존에 한식 세계화를 중심으로 수립·추진되었던 기관 비전과 사업추진 계획(구조, 전략)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기초 변화가 사업 실행계획 전반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모니터링과 개선, 환경 변화와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기관이 나아가야 할 적절한 방향·방안에 대한 검토·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관 설립 이후 10여 년이 지났음을 고려하여 사업 전반의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규모 등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예산·조직의 증가가 단기간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한정된 예산·조직으로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범위·규모 등과 함께 기관이 필수적으로 집중(선택)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부문별로 제시된 계량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실적도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식문화관,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 한식문화 언론 노출도 등

은 제시된 목표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 비계량지표의 경우 제시된 실적에 근거할 경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계량지표, 비계량지표를 통해 제시된 성과들이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성과목표가 한식 인프라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한식 국내외 확산, 한식당 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 전략을 충분히 담아내면서 설립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 비계량지표의 경우 비계량지표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실적(성과)의 경우 여전히 계량지표와 유사하게 양적 성과(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러한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 주요 부문별 성과지표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사업실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한정된 인력·예산 속에서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또한 비계량지표 성과지표들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달성이 경영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이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성과목표의 달성이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아직까지는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계량지표의 경우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질적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양적 성과를 중점적으로 제시·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성이 존재한다.
- 성과지표를 통해 달성된 성과와 목표(실적)들이 세부적이고, 단편적인 것과 비교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설립목적 등은 광범위하고 거시적·추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시된 성과지표와 이러한 지표(목표, 실적)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와 설립목적 충분히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을 위해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평가결과와 외부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 개선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효과적·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조직을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임. 대부분의 내부 및 외부평가와 지적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만 사업별 환류 활동이 사업 체계와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서 기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전반적인 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으로 구분하여 자체 평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 모니터링과 주요사업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환류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평가 단계에서 내부 및 외부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환류 단계에서 보수·인사 체계와의 연계, 결과 공유, 중장기 전략 방향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염두에 두고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과 향후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또한 긍정적이다.
- 그러나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절차적 노력을 상당히 기울인 반면, 이러한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별 반영(개선)이 효과적/구체적이며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환류의 결과가 충분하고 긍정적인 사업성과·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질적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 활용 및 개선 내용이 여전히 양적 개선(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사업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체 평가시스템에서 제시한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의 절차 이외에도 더욱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사업추진과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사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성과평가 이외에도 사업과 조직의 실태를 보다 심도 있게 진단할 수 있는 절차가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대상, 내용 등의 편중성, 지속성 등의 개선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 수립부터 환류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관에서 수립·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요 요소로 포함하여 사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국산 식재료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등 농식품 부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적 가치들을 전반적으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정과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기관의 노력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을 위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거나, 사업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기관 사업들과 연계하여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비교적 다양한 사업들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기관의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사업추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머무르지 않고 추진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체계적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경우 현재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추진 사업의 경우 해외 한식 인턴 지원, 한식 전문인력 취업 지원 등 한정된 범위·규모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식문화관 쿠싱클래스 체험에 사회적 약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일정의 성과를 보인 반면, 사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유형이 자체평가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일부 외국인/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 활성화의 경우 대부분 행사/이벤트 프로그램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추진된 사업 규모·범위가 협소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다양하며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 모델(구조)의 보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관리 적정성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은 ‘한식문화 및 한식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나 계량지표 중 한식 산업 진흥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지표가 부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5개 계량지표가 기관을 대표하는 계량지표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깊은 숙고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표를 통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부족한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성이 높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가 지표관리가 용이한 측정치로 산출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한식 콘텐츠 활용도 지표의 경우, 콘텐츠 열람 및 활용을 위해 당해연도 제공된 건수라는 단순 측정치로 측정산식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측정산식은 한식 콘텐츠 활용도라는 정량지표를 반영하기에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식문화 언론 노출도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줄이고 노출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높아진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등 기타 계량지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측정산식 및 변수가 해당 계량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예산 인력 비중에 따른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에서 비중이 높은 계량지표의 가중치를 오히려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지표의 난이도를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지표 POOL에도 없는 핵심지표가 선정되어 핵심지표 선정 근거도 명확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강화에서 SMART 분석, 전력연계, 국정과제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지표를 핵심지표로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등 기준에 부합되는 않는 지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 선정에 외부전문가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POOL이 부족하므로 성과지표 POOL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과지표 분석을 위해 SMART 외에 P(public) 또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검토하였다.
-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위해 직전 3개년 평균 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으로 기준치를 설정하고 기준치의 120%를 최고목표치로 산정하고 있으나, 환경분석 및 변화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표 개선과

함께 목표부여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 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별 적합한 목표부여 방식을 선정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여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위해 직전 3개년 평균 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으로 기준치를 설정하고 기준치의 120%를 최고목표치로 산정한 점은 일부 지표의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환경분석 및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없이 전년 대비 단순 120%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한식문화관 이용 활성화 지표의 경우 문화군집밀도방식에 따라 적정 방문객 수를 산정하여 목표설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보다 하향 조정한 목표치(특히 체험객 수) 설정은 도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표 개선에 따른 목표설정 방식 또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지표구성 적정성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 IV.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



## IV.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 1. 정책제언

- 평가지표 개선 등 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선사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에 관한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영평가 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편람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용하여 2018년도 평가편람의 공통지표(경영관리) 세부평가내용 보완사항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 (1) 평가편람 수정 및 보완 필요

- '18년도 경영평가 편람상 일부 계량지표의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세부평가 산식이 제시되지 않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표임에도 산출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18년도 평가의 경영관리 범주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가 신규 추가되었으나, 계량지표의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 산식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추후 평가편람에는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세부지표 및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필수선택지표 4개, 기관 자율선택지표 4개)' 등에 대한 명확한 산출 방식 제시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18년도 평가 편람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소기업 생산품'의 세부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해당 항목에 대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가중치 0.3~0.6점만 기재되어있다. 추후 평가편람에는 명확한 평가 기준(예 : 구매총액의 50% 이상), 평가 산식(예 : 구매 실적/구매총액X100), 기관 자율 가중치 가중치(0.3~0.6) 등 세부적인 산출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경영관리 지표의 '총 인건비 관리' 지표에서는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평가연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총인건비 인상률은 모든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통으로 매년

100%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공통으로 동일한 득점이 발생하는 바, 지표의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거나 감점 지표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또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비계량지표의 평가 등급(A+~E0)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허위 및 오류보고 시 페널티 구성 등의 기준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페널티에 관한 내용 구성 시, 중대성 정도의 판단 기준은 평가단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 및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 경영관리 범주의 큰 배점을 차지하는 신규지표인 ‘사회적 가치구현’ 등이 추가되어 평가체계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2018년 경영평가 편람은 각 기관에 4분기인 '18년 10월에 공유되었다. 평가체계가 매년 변화되고 있어 피평가기관의 평가 대응 등 원활한 기관·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편람을 연초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 및 개발 필요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목표의 선정과 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임에도, 4개 기관 공통으로 성과도출이 비교적 쉬운 지표만을 제시하거나, 외부환경에 따라 점수의 편차가 매우 커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각 기관의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언론 노출 건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실적에 불과한 과정지표로 홍보의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수입 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지표의 산식은 ‘이상보고 건수/현물검사 건수) X100’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성과가 낮게 산출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지표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목표 달성으로 아무리 좋은 점수를 획득하



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운영을 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영평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구성의 적절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성과의 목표치와 성과 측정방법은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목표치와 측정방법이 잘못 정해진 지표가 존재하였다. 이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지적하였음에도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순히 지표를 통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설정된 성과목표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및 측정방법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 난이도 및 도전성에 따른 배점 고려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년 대비 단순 수치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배제해야 할 것이며, 환경분석 및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설계를 선행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 〈부 록〉

## 2018년도 공통지표 세부평가내용 편람 보완사항

#### Ⅰ 사회적 가치구현 [19점]

##### (1) 일자리 창출 [6점]

평가지표	일자리 창출(계량 : 3점)	
지표 정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내용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17.10.25.)」 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대상자 중 정규직 전환대상이 없는 기관이 존재할 경우: → 총점 환산제 적용(비계량지표의 점수를 계량 지표에 동일하게 반영)
평가지표	일자리 창출(비계량 : 3점)	
지표 정의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내용	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②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 교대제 변경,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및 탄력 정원제 시행 등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기관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한 전환의 난이도 및 목표 초과 달성,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 고려  ④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청년고용 여력창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퇴직자 대체 신규채용 외의 노력’ 항목의 비중을 33.3%로 반영(1점 만점)  → 청년고용 실적 만점 시 : 1점 부여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5점]

평가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3점)	
지표 정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내용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합계 3점) - 장애인 의무고용(0.6 ~ 1.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6 ~ 1.5),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0.6 ~ 1.0)	1) 장애인 의무고용사항 : 50인 이하 기관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음 → 적용 불가 항목의 경우, 적용 가능한 항목에 최대 가중치 부여 후 잔여점수 만점 처리 2)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현원 기준 국가유공자 구성비율은 충족하나 당해연도 채용실적이 없는 경우 존재 → 연말 상시근로자 중 유공자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판단 3)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 용역근로자 고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 → 적용 불가 항목의 경우, 적용 가능한 항목에 최대 가중치 부여 후 잔여점수 만점 처리
평가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2점)	
지표 정의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내용	①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 여부 ②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청년고용 준수 여부, 고졸 채용 확대, 비수도권 인재 채용·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 채용 비율 달성 노력 여부 ③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④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청년채용 노력과 실적을 반영하는 세부항목의 비중을 50%로 반영(1점 만점) → 청년고용 실적 만점 시 : 1점 부여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평가지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계량 : 3점)					
지표 정의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구분	세부평가내용					
‘18년 평가편람 (변경 전)	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총합계 3점) * 필수선택지표(4개): 중소기업생산물(0.3~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0.2~0.4), 여성 기업생산물(0.2~0.4), 장애인생산물(0.3~0.6), * 기관 자율선택지표(4개): 기술개발생산물(0.2~0.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0.6),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춘 생산물(0.2~0.4), 재정 조기 집행(0.3~0.5)					
변경(안) 예시	항목	세부 내용	자체평가 기준	항목별 필요 자료		가중치
				실적	기준	
	필수 선택	중소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0%	구매 실적	구매총액	0.3~0.6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	구매총액의 3%	구매 실적	구매총액	0.2~0.4
		여성 기업생산물	구매총액의 5%	구매 실적	구매총액	0.2~0.4
		장애인생산물	구매총액의 1%	구매 실적	구매총액	0.3~0.6
	기관 자율	기술개발생산물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구매 실적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구매 실적	경상경비총액	0.3~0.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생산물	자활용사춘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구매 실적	기준금액	0.2~0.4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비 100%	상반기 집행액	전년도 집행액 / 구매예산	0.3~0.5

② 국민소통 [9점]

(2) 국민평가 [4점]

평가지표	국민평가(계량 : 4점)	
지표 정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나 주무 부처 주관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100점 만점)</li> </ul>	명확한 산출기준 제시 →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득점 (100점 기준) X 0.04

(3) 경영정보 공시 [2점]

평가지표	경영공시(계량 : 2점)	
지표 정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 내용	① 경영정보공시 점검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경영공시 항목  ② 세부 평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명확한 산출기준 제시 → 기획재정부 평가 기준(1점)에 따른 배점 기준 X2 ※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18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 1) 별점 없음 : 1.0점 2) 별점 0.1~10.0점: 0.834점 3) 별점 10.1~20.0 : 0.667점 4) 별점 20.1 이상 : 0.5점

③ 재무예산 관리 [5점]

(1) 재무예산 운영 · 성과 [5점]

평가지표	재무예산 운영 · 성과(계량 : 5점)	
지표 정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100%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 내용	① 세부평가지표는 재무예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비 집행률을 평가한다.  ② 세부평가지표의 예시  $\text{사업비 집행률} = \frac{\text{사업비 집행액}}{\text{사업비 예산현액}}$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업비 집행률(정량)에 인건비(경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기관 존재 → 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정부 보조금 배정이 없어 전체 사업비 집행률에 인건비(경비)를 포함하여 산정함.  ※ 18년도 경영평가편람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 적용 사항’ - (4) 사업비 (p.21) : 세출 예산서에 별도의 사업비 항목이 없고 인건비와 경비만이 있거나, 사업비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가 사업비성 경비에 해당되어 직접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는 전체 예산을 사업비로 본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2점]

(2) 총인건비 관리 [5점]

평가지표	경영공시(계량 : 2점)	
지표 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 내용	① 총인건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 $\text{총인건비 인상률} = \frac{\text{평가연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② 총인건비의 정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름	총인건비 인상률은 4개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통으로 매년 100% 달성하고 있음. → 기관별 공통으로 동일한 특점이 발생 하는바,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없어 삭제하거나 감점 지표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2. 주요사업 범주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8점]

평가지표	주요사업(비계량 : 18점)	
지표 정의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 내용	①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 배분 계획 수립의 적정성 ②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	※ 세부 평가내용별 배점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예시) 지표의 중요성, 목표의 난이도·도전성 등에 따라서 ① 4점 ② 3점 ③ 5점 ④ 3점 ⑤ 2점으로 배점 세분화  → 합계 18점

평가지표	주요사업(비계량 : 18점)	
지표 정의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 ⑤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 총 18점(전체 합계 점수만 제공)	

②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점]

평가지표	주요사업(비계량 : 7점)	
지표 정의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구분	'18년 평가편람	보완사항(예시)
세부평가 내용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총 7점(전체 합계 점수만 제공)	※ 세부 평가내용별 배점 세분화(예시) 지표의 대표성 : 4점 목표 수준의 도전성 : 3점 → 합계 7점